



## 미래부 세종시 이전 이춘희 시장 '정치적 운명' 달렸다

과천잔류설 제기... 지방선거 공약, 행정·정치력 시험대 올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이 제기되면서 충청권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시킬 경우 이 시장의 행정력이 부각될 수 있지만, 무산될 경우 이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서다.

특히 이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약속해온만큼 이 시장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시장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설립한 미래부는 과거 과학기술 컨트론타워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부의 업무에 ICT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까지 포괄하는 부처로서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서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충북에는 생명과학의 요람인 충북 과학단지(가칭)가 위치한 만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세종시의 원안사수를 강조하면서 충청권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노무현 정부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세종시를 선택했다. 미래부 등 남은 정부부처가 행정수도 원안대로 세종시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을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난데없이 미래부가 경기도 과천잔류설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에서 확인해본다 남아있는 정부부처의 이전계획에 미래부는 속 빠저있고 해당부처인 최양희 장관도 '세종시로의 이전계획은 미래부소관이 아니다'라며 국감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욱이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이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경기 관천의왕)이 미래부의 과천 잔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의 대책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돼 있는데 맞대응해서 문제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돼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이 제기되면서 부라

부라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미래부의 이전 계획도 없고, 해당부처의 장관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안일하게 대응한 이춘희 시장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뒤늦게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물거품 되는 분위기를 감지한 이 시장이 지난 9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박범계(대전 서구)·오제세(충주 흥덕갑)·노영민(충주 흥덕을)·변재일(충주 청원구)·양승조(천안갑)·박완주(천안을)·박수현(공주)의원과 함께 500만 충청인의 명운을 건 공조협력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을 관철하는 한편, 연말에산국회의 국비확보를 위한 공조차원의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의 초점은 단연 신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맞춰졌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도 지난 10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정치적·행정 효율적 측면 등에서 면에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충청권의 공분을 산 '미래부 과천 잔류설'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질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요구하자, 과천이 지역구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반발하고 나선 것도 세종시 인정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부처 이전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무성의와 해당 부처인 미래부의 모르쇠, 이 시장의 능동 대응으로 미래부의 이전에 500만 충청인이 또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이정복기자



대전 중구자원봉사협의회, 다문화가족과 송편만들기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6일 구청 후생관에서 다문화가족과 중구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해 '사랑나눔 송편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희망과 풍요를 기원하는 송편만들기 행사에는 박용갑 청장과 다문화가족 2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추석명절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정성껏 빚은 송편 800kg은 어려운 이웃 400세대에 전달됐다.

## 대전권대학 2016 수시경쟁률 '치열'

경찰·군인·소방관련 학과 등 지원자들 대거 몰려

2016학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 결과 청년실업난을 반영한 듯 취업특성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보장 등으로 전통적 강세를 보이는 의예·간호학과와 경찰·군인·소방관련 학과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16일 각 대학에 따르면, 충남대가 9월 10~15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한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원서접수 결과 전체 2506명 모집에 2만 288명이 지원해 평균 8.0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시모집에서는 6.80대 1(2582명 모집/1만7569명 지원), 2014학년도에는 5.59대 1을 기록했었다.

이런 수시모집에서 높은 경쟁률

을 기록한 학과는 일반전형의 경우 의예과가 2254대 1(24명 모집/541명 지원)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농업경제학과 19대 1(13명 모집/247명 지원), 고고학과 16.86대 1(7명 모집/118명 지원)을 기록했다.

PRISM인재전형의 경우 심리학과가 3325대 1(4명 모집/133명 지원)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언론정보학과 29.00대 1(4명 모집/116명 지원), 수의예과가 22.33대 1(6명 모집/134명 지원)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밭대는 15일 오후 6시 현재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현황이 정원내 1067명 모집에 747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01대 1을 기록하고 있다.

한남대는 15일 오후 7시 현재 2016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 결과 1781명(정원 내) 모집에 9304명이 지원해 5.22대 1을 기록했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율 상위 학과는 학생부교과일반전형의 행정·경찰학과(47명 모집에 773명 지원, 16.45:1 기록)와 지역인재전형의 사회복지학과(3명 모집에 36명 지원, 12:1 기록) 등이다. 지난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율은 1889명(정원 내) 모집에 8929명이 지원한 4.73대 1을 기록했다.

대전대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결과 정원내 1635명 모집에 9939명이 지원해 평균 6.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대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은 전체 45개 학과에 정원내 1635명 모집에 9939명이 지원하여 평균

6.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교과전형 2에서 한의예과(자연) 6명 모집에 187명이 지원해 31.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목원대는 15일 오후 7시 2016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6.02대 1(정원내 기준 - 모집인원 1353명, 지원자 8149명)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만화·애니메이션과 3827대 1(15명 모집에 574명 지원, 유아교육과 3025대 1(8명 모집에 242명 지원), 시각디자인학과 2718대 1(11명 모집에 299명 지원)이었다.

건양대는 2016 수시 원서접수 결과 1278명 모집에 1만 943명이 지원해 8.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정복 기자

## 대덕벤처타워 건립 본격 추진

대전시-대전경제 5개 단체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와 대전경제 5개 단체는 16일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덕벤처타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덕벤처타워 건립'은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근로자 기숙사, 입주시설 등 기업지원 전문시설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동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대전시는 대덕벤처타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고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제35회  
**금산인삼축제**  
THE 35th GEUMSAN INSAM FESTIVAL  
2015. 10.2 ~ 10.11  
www.insamfestival.co.kr  
www.insamfestival.co.kr  
www.insamfestival.co.kr



# 감사원, 고발등 처분 감소...공무원 범죄 증가

## 감사원의 부실감사 및 초록은 동색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 제기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및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는 여전히 반면,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과 ‘징계 요구’ 건수는 감소하여 감사원의 부실감사 및 초록은 동색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등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및 징계’와 관련한 국정감사자료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13년 332명, 2014년 415명,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142명이 기소되어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공무원 뇌물범죄’는 2013년 171명, 2014년 221명, 2015년 7월까지 82명 기소되었다.

##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월세대출 고작 2%

박수현의원 “적극적 상품홍보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해야”  
금년 목표액 500억원 중대출은 167건, 11억원뿐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취급실적이 167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8231·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15년도 목표액인 500억원의 2%인 11억여원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거나 월 6만원 이하면 신청

## 박완주 의원 “안전예산 적극 반영 획기적 개선안 마련해야”

전기안전예방 예산 해마다 제자리 맴돌아

전기화재와 감전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획기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원대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전안)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전기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여 사고 예방예산과 안전사고는 제자리를 걸고 있다.  
실제 전기화재는 2013년 8889건, 2014년 8287건, 2015년 6월까지 4047건 등 지난 2년여 동안 2만 1223건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

다. 전기안전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전기화재는 2013년 328명, 2014년 326명, 2015년(6월) 170명 등이며 감전사고는 2012년 571명, 2013년 605명, 2014년 569명으로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2013년 737억원, 2014년 706억원, 2015년(6월) 320억원으로 총 1763억원으로 다행히 감소세를 보였다.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점검과 전기안전홍보, 안전교육, 취약시설개선이 땀집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운반 위한 시민공청회’

대전시의회김동섭 의원·이상민 국회의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동주관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2)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공동주관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운반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대전지역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모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과 이송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전지역의 방사성폐기물은 육상으로 운반되는 만큼, 운반일정은 사전설명회 및 언론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응급상황 대비 훈련, 대전 시내내 경찰 에스코트 병행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청회를 공동주관한 이상민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전지역의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

실적은 더 감소한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 역시 2012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2010년의 337건에 비하여 211% 증가한 711건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부터는 614건, 2013년 475건, 2014년 357건으로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가, 감사원의 감사능력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의 의지 역시 현 정부 이후 급속히 감소한 것이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최근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및 뇌물범죄의 증가와 달리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이나 징계요구의 감소는 부실감사의 징표이며, 감사원의 공무원 ‘봐주기’ 감사는 최근 철폐되거나 감사원 감사관의 성매대 사건 처벌 피감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개혁은 감사원 고위직부터 피감사기관과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정환기자



박수현 의원, 국회에서 ‘공주 알밤 판촉전’ 개최 전국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공주 알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주 알밤 판촉전’이 16일 국회의사당 후생관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이 주최하고,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김생연)이 주관한 이날 판촉전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전병헌 최고위원, 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 김영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민병주 의원 ‘동물방치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나서

“우리 사회가 방치로 죽어가는 동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한다” 주장



지난 달 17일 고양시 동물보호센터가 하반기 결산보고회를 열어 24일 안락사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과 고양시청 고양양육팀장 조희경에 의해 밝혀졌다.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사진)은 현행법상 동물을 방치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데다가, 방치로 죽어가는 동물을 구조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치로 고통받는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해 5월 방치로 동물들에게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자체가 1년 넘게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민 의원은 “살아있는 고양이 하

반신에 구더기가 들끓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면서, “더 이상 방치로 인한 동물학대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사회가 방치로 죽어가는 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상 방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 충남도의회, 내년 전면시행 자유학기제 성공 이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 협력 기반 구축 미흡, 사회적 논의 부족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충남도의회가 내년 전면시행 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인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역사회와 일선 학교 현장에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 철저한 준비 없이는 ‘두 마리 토끼’ 해달라고 기를 모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두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정호 의원(서산1)의 신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 사전에

약을 처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가 기초발제를, 유광호 서산지역사회교육협회장과 강명옥 서산삼교육학부모의원, 강혜원 도비스쿨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맹정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자유학기제 도입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기초발제를 통해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며 “성공 추진을 위해 해선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지원을 청소년 학습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지역 내 공공부문 기관·시설이 고유하게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검토해 청소년 진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 사전에

회 분위기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토론 자리에서 “시·도별 자유학기제 진도체 협의원센터가 총 130개(충남 13곳)로 늘었다”며 “이 센터가 공학교육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유학기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기반 구축도 미흡하다”며 “사회적 논의 역시 부족하다. 단순히 직업체험이 아닌 진로탐색의 방향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원장은 “청소년들이 찾아가 체험하는 진로직업 체험처에 관한 협력 체계가 부재하다”며 “진로 선택을 위한 로드맵도 없다. 자유학기제가 단순 체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오늘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 등이 제시됐다”며 “이날 제시된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 실마리를 풀겠다”고 밝혔다. 내포=이지용기자

##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 매년 평균 751명 달해

이 중 신원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89명에 이른 것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매년 평균 751명에 달하고, 이 중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8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해경본부 변사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천757명, 한해 평균 751명이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74명, 2011년 717명, 2012년 738명, 2013년 741명, 2014년 887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전 보다 31.6% 늘어났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 중에 원인별로는 사고가 2천736명으로 가장 높

았고, 자살 36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변사체 3천757명 중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445명으로 11.8%를 차지했고, 신원이 확인된 시신 중 타살과 타살 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해경본부 변사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천757명, 한해 평균 751명이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74명, 2011년 717명, 2012년 738명, 2013년 741명, 2014년 887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전 보다 31.6% 늘어났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 중에 원인별로는 사고가 2천736명으로 가장 높

920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발견되지 않은 성인 실종자는 2011년 1천417명에서 2012년 1천727명, 2013년 2천302명, 2014년 3천515명으로, 4년 새 60% 급증했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평균 751명씩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사유 중 사고로 인한 부분은 해상안전이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타살과 사인불명의 경우는 강력범죄에 의한 시신유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매년 미발견된 성인실종자는 60%씩 급증하고, 해상에서 신원확인불가능 변사체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통계를 간과해선 안 된다. 명확한 사인규명과 신원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동 정 ●

총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7일 오전 11시 30분 제 중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열리는 총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참석.

목요조찬회



김인식 대전시 의회의장= 17일 오전 7시 30분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목요조찬회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중부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전시장대어머니생활체육대회 참석.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의



한현택 동구청장= 17일 오전 11시 선화동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34분기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의 참석.

중구 기관단체장협의회



박용갑 중구청장= 17일 오후 5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중구 기관단체장협의회' 참석.

승강기 사고 승객구조 훈련



장종태 서구청장= 17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과 1층 로비에서 '승강기 갑질 사고 승객구조 훈련' 참석.

청소년 나Be 한마당 개막식



허태정 유성구청장= 1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 열리는 2015 청소년 나Be 한마당 개막식 참석.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이상용 씨 '본상' 수상



대전서부소방서 이상용 소방장이 16일, 국민안전처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42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하고 소방위로 1계급 특별승진했다.

이 소방장은 1996년 8월 소방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제업무 수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방행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소방안전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방홍보활동 수행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이번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1974년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관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영호 기자

러시아권 환자 2배 이상 증가

市, 의료관광객 41명 방문... 메르스사태 극복노력 결실

대전시는 극동러시아(사할린, 하바롭스크, 캅차카 등) 지역 의료관광객 41명이 충남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비롯한 산부인과, 피부성형, 정형외과 등 진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한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지난 8월말 市와 충남대병원 등 대전지역 7개 의료기관이 극동러시아 홍보마케팅을 통해 현지에서 의료상담을 받고 방문한 환자로 치료가 끝나면 비비페스티벌 등 대전 문화관광과 충청을 연계한 의료관광 코스를 답사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는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다국적 보험사,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전 지역의 의료



기관을 직접 실시하고, 러시아 의료관광객 모객 및 송출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및 워크숍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일정은 ▲15일부터 16일까지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우리

병원, 플러스성형외과, 보다안과 등에서 건강검진과 진료과별 진료 및 치료를 받고, 한밭수목원과 계족산 황룻길 등 대전의 명소를 둘러보고 ▲17일~18일 공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기행, 영동 국악과 예산 농악 등 체험

이영호 기자

추석맛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추진

대덕구, 차량통행 정체·이용자 불편 심한지역 집중 단속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은 추석에 맞이하여 명절 대목을 편승한 도로불법 점유 등으로 차량통행 정체와 이용자 불편이 심한지역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이날 22일부터 안전도시국장을 팀장으로 전담 TF팀 2개반 12명을 구성하여 주요거리 2개소와 교통정체 및 혼잡 예상지역 4개소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야간단속과 주정차단속도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때마다 오정동 농수산시장 주변의 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한 과일 노점상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교통 정체와 시장이용 불편으로 주민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께서도 노점상물건 팔아

지지 않기 운동에 참여하여 깨끗하고 원활한 도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에서는 그 동안 관내 도로 및 학교주변 무단점유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3개부서 합동으로 경골구(크레인 개입기), 에어풍선, 포장마차(봉어뿔, 튀김 등) 등에 대한 집중계도 자진정비 하였으며, 고질·반복적인 불법점유물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강제수거를 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2015 대전시 학생자치회 체험 박람회 16일권선택 대전시장이 2015대전학생활동교육 체험 박람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구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 마감 임박

오는 21일까지 접수마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가을하늘을 수놓을 마라톤대청호의 열한 번째인 2015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 참가접수를 오는 21일 마감한다고 16일 밝혔다.

동구 신상동 신상교차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물사랑 대청호마라톤대회 참가마감이 21일까지이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dcrace.com) 및 전화로 선착순 접수한다.

대전시 동구, 대전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광역시동구체육회, 대전육상경기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물사랑 대청호마라톤대회에는 국내 마라톤호인 3천여 명이 하프코스, 10km, 5km 부문에서 각자 젊음과 건강을 다지며 다음달 9일 힘찬 우정의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참가자 전원은 울창한 산림과 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뽐내고 있는 대청호를 통해 피톤치드(Phytoncide)를 마시고 느끼며 사회생활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참가비 중 일부를 동구 대표 복지밴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에 기부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로 추진되어 가을하늘을 사랑으로 가득 수놓을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자연을 벗삼아 건강을 다지고 참가자 간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는 뜻깊은 대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서구 지방분권 강연회 개최

지방자치 의식 함양·지방분권 강화공감대 형성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 강연회'를 개최했다.

구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자 지방자치행정 분야의 권위자인 최진현 교수(충남대학교 지리행정학과)가 강사로 나서, '지방분권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최 교수는 강의에서 ▲지방자치의 ▲지방분권 개념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 ▲국가와 지

자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자치분권의 미래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민과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강의에 앞서 장종태 서구청장은 "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8월 16일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출범식을 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태선 기자

무료 호신술 교육 확대 시행

서구, 10월 중순부터 10주간 관내 8개 태권도장서 진행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 서구가 지난 6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추진했던 '무료 여성 호신술 교육'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기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안전하고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태권도협회'와 '무료 호신술 교육' 협약을 맺고 4개 태권도장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호신술 교육(1기)을 진행한 바 있다.

1기 교육을 주관했던 태권도협회와 태권도장 4개소는 재능나눔 여성호신술 교육에 자긍심을 느꼈으며, 교육에 참여했던 여성들 역시 호신술교육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를 향한 민과 관이 한마음으로 통한 것으로 평가

된다.

이에 장종태 서구청장은 최근 '무료 호신술 교육(2기)'을 확대 운영키로 결정하고, 참여 태권도장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여성들이 무료 호신술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로서 모범을 보일 전망이다.

2기 교육은 10월 중순부터 10주간 서구 관내 8개 태권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서구에 거주하는 성인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10월 14일까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서구청 여성가족과(042-611-6282)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2015 '같이유' 대전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활동 '한눈에'

2015 '같이유' 대전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오는 19일 10시에 원도심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된다.

대전시와 고용노동부 산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2011년 시작해 올해 5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우리지역 88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생협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지역에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활동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7월부터 매주 모여 포스터부터 행사 구성까지 박람회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을 당사자들이 직접 제작하였

으며, 메인공연은 사회적기업인 마당극대 우금치에서 기획연출한 창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9개 테마존을 운영하고 관람하기 편한 동선에 따른 버스 배치 등 2014년 박람회 시에 미흡했던 점을 적극 보완하였으며, 어린이 참여 베품시장 및 문화형 기업들의 소규모 창작공연 등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특화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베품시장과 같이 유' 사회적경제 슬로건 공모, B리터칭 공모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공연 및 다문화 퍼레이드, 거리 마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되고, 우리지역 로컬푸드 등 다양한 먹거리 등으로 내실있게 꾸며질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박람회가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되는 만큼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즐길 것을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유성구 체납액 4억여 원 징수 강화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안내문 발송 통한 자진납부 유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오는 17일부터 두 달간 하수도과 지하수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강화에 나선다.

구는 이 기간 체납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 전화와 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입류 및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체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일체정리기간 동안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현재 하수도과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은 4억여 원으로 이번에 최소한 18.19%인 7240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새마을금협동협의회, 아침 대청소 새마을지도자대전동구협의회(회장 정오영)의 삼성동협의회(회장 이명식) 회원 15명은 지난 14일 관내 대동천에서 추석맞이 아침 대청소를 실시했다.



건보공단대전유성지사, 사랑의 집 물품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지사장 장홍순)는 16일 추석명절에 즈음해 유성구 송정동에 소재하는 '사랑의 집(원장 정승일)'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서산뜨레' 13개 품목 선정

## 토마토·블루베리(즙)·아로니아착즙액·누에정 등 현재까지 36개 품목 승인

서산시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 13개 품목에 대해 우수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서산뜨레' 사용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외 신용도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결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운산농원(슬로우팜 블루베리(생과) ▲서림농장(주) 친환경쌀(우렁 색시미) ▲해돋이농장 오색미(4종) ▲(영)서천순 표고된장, 표고고추장 ▲서산굴산업(주) 어리굴젓 ▲소금이오소리 천일염 ▲팔봉산해풍농장(해미도마토)농장 토마토 ▲서산진보산삼법인 산양(산삼) ▲중리어촌체험마을(송원식품) 감태 ▲블루베리(즙)인 블루베리(즙) ▲서산아로니아법인 아로니아(착즙액) ▲서산양잠조합 누에정 등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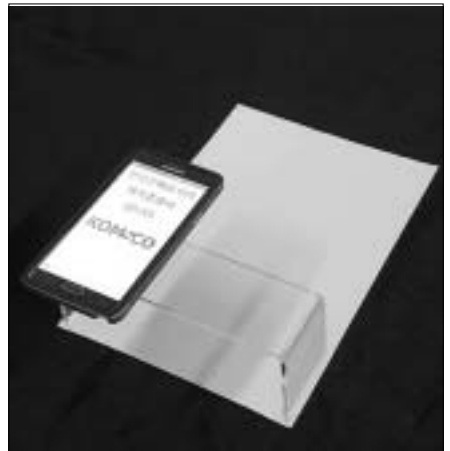
개 업체 13개 품목이다. 시는 이들 품목에 대해 국내외 각종 홍보행사 참여 우선권 부여 및 해당 품목 생산과 관련한 시설사업 등을 지원한다. 연 1회 '서산뜨레' 사용실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산시는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서산뜨레'를 사용토록 하고 있

다. '서산뜨레'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은 산수향(쑤마늘), 서산우리한우, 뜰부기와 함께 자란 쌀 등 36개 품목이다. 심현택 농정과장은 "서산뜨레"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은 서산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니 만큼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며 "우수 농특산물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돈포면 소재 (주)포일텍, 행복키움추진단에 후원금 전달 아산시 돈포면 소재 (주)포일텍(대표 이해창)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5일 돈포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여진석)에 후원금 30만원을 기부했다.



### 위변조방지 신기술 설명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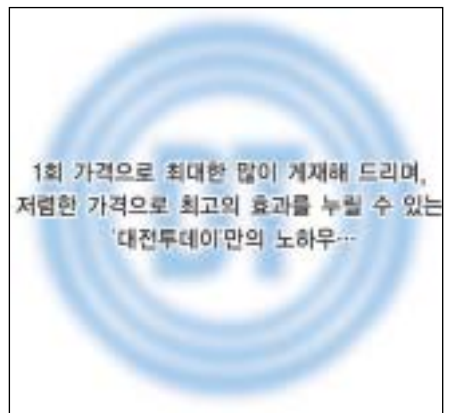
### 조폐공사, 최신기술 민간과 공유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c.com)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제2회 위변조방지 신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에 한국조폐공사(KOMSCO)가 개발한 최첨단 위변조방지 기술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민간과 기술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위조와 짝퉁으로 인한 피해 및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했다.

올해 시즌 2에서는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기술로, 위변조방지를 위한 보안인쇄 및 브랜드 보호 기술, ID·보안용지·압인기술로 구성했으며, 대표 기술로 △Hiddencode(암호화 보안코드), △IntroView(스마트 입체 필름) ▲SmartUV(형광 보안 패턴), ▲Hiddenface+(2Way)잠상), ▲KShel(전자봉인 보안 모듈), ▲Security taggant paper(특수 물질 보안 용지), ▲Metal Archi-tech(금속소재 감성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 아산폴리텍대 POSCO 채용설명회 열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철)는 15일, 대학본관 세미나실에서 POSCO 노무기획팀 인사담당자를 초청 'POSCO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회사소개와 더불어 POSCO가 원하는 인재상 및 인재 채용 절차, 입사전략, 직무소개, 복리후생 등 기업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POSCO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취업에 앞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한편, 윤기철 학장은 "앞으로도 기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재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찾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청양군 비봉면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청양군 비봉면(면장 성홍제)은 추석을 앞둔 지난 15일 안산시 공산품유통센터에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날 비봉면내 유기농 밥, 구기자, 하수오, 정육 등 다양한 농·축산물 생산농가가 참여해 판촉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는 추석을 맞아 도시 소비자들에게 청양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한편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매월 1회 열리는 비봉면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동거리와 유통과정을 축소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청양=정삼범기자

## 충남농협 추석 명절 식품안전사고 ZERO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권형)는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오는 25일까지 운영하며, 판매 하나마트 246개소와 집객사업소 4개소에 대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상황실에서는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농산물 13개, 축산물 7개, 선물세트 8개)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식품위생 취급기준, 식품 보존 및 보관 기준 등에 관한 취급 적정성을 중점점검

실시한다. 조권형 본부장은 "충남농협은 식품안전 특별관리를 통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읍·면·동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 위촉

### 공주시, 본격적인 기업유치활동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촉각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해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 20명을 위촉한 데 이어 관내 16개 읍·면·동에 대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을 위촉,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개정, 16개 읍·면·동에 대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월 중에 읍·면·동별로 총 160명의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을 위촉한다.

시는 이번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 위촉을 지난 14일 계룡면을 시작으로 15일 중화동, 17일 신봉면 등 관내 16개 읍·면·동에 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들을 활용한 본격적인 기업유치활동에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기업의 투

자유치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각 지역에 대한 기업유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촉받는 위원들은 출향인사, 기업체 대표나 임원, 부동산 컨설턴트,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확신과 정성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돼 효율적인 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주시 기업경제과 기업유치팀 김중섭 팀장은 "각 읍·면·동의 기업투자유치위원 위촉을 통해 기업유치활동이 지금보다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공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삼범기자

## 추석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1950억원 지급

### 철도공단, 시스템 개선·특별지원반으로 공사대금 적기 집행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현장의 지급유동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약 1950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전에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17일부터 25일까지(9일간)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신청 폭주로 발생한 대금청구시스템(CPMS)의 지연, 오류 등의 협력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대금청구시스템 운영체제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한 클라우드 방식 서버 CPU 메모리 등 서버의 핵심요소를 사용자 수요에 맞추어 가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상서버로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속도를 최대 8배까지 향상시키고 협력사 PC와의 호환성을 확

대해 협력사로 하여금 한층 빠르고 안정적인 대금청구업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공사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 ERP특별지원반을 운영해 협력사 온라인 업무처리 및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사대금이 협력사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에 특별지원반 설치 및 #8231:운영한 결과 362건의 대금 지급 요청을 받아 단 한건의 지연 없이 약 1027억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며 "올 추석에도 철도협력업체가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금지급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협력업체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적인 황토 벽돌과 나무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질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황토가 가지고 있는 수직 배리의 비생물이 전 세계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우리 물의 정화작용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 3 전통적인 美 (Traditional Beauty)

한옥은 기둥 위에 '도리'라는 부재를 올리고, 그 위에 '서까래'라는 부재를 올려서 지붕의 구조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처마의 형태가 구조적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둥의 전통성과, 구조체도 쓰인 나무와 황토의 색깔, 그리고 흙 대담이 우리나라 전통 양식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 2 난방비 절약 (Domesticity)

흔히 말하는 황토 집 온돌방(방앗방)이 바로 이 편을 가릅니다. 추운 겨울날, 이같이 따뜻한 물을 때에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과,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습도와 온도조절 기술 그리고 공기 정화기능으로, 다른 날은 시원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서 쾌적하면서도 인공적인 열을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서양의 비닐로 감싸서 과열되어 인화되는 위험성도 없고, 보일러나 벽난로가 화재와 고장도 염려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Best Plan 대표. 박정호  
010.7472.4972  
pjmin1456@hanmail.net





‘중경 양강 - KAIST 국제 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 KAIST, 中 중경이공대학에 교육 등 수출

KAIST가 中 중경이공대학에 KAIST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수출한다.

KAIST 총장 강성모와 중경이공대학은 지난 14일(월) 오후 중경이공대학(Chongqing University of Technology) 양강 캠퍼스에서 강성모 KAIST 총장, 쉬 사오후이(Shi Xiaohui) 중경이공대학 총장, 가을학기 신입생 66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경 양강 - KAIST 국제 프로그램 입학식’을 개최했다.

‘중경 양강 - KAIST 국제 프로그램’은 양 대학이 전기전자 및 컴퓨터 분야 인재를 양성해 중경시한·중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고급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대학은 중경이공대

학 양강캠퍼스 내에 전기및전자공학학과 전산학과를 개설하고 올 가을학기에 총 66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커리큘럼은 현재 KAIST의 전기및전자공학부와 전산학부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대부분 준용할 계획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준비됐다. 수업은 KAIST 교수진 8명이 참여해 전공 교과목의 3분의 1을 영어로 강의하고, 중경이공대학 교수진 17명이 나머지 교과목을 담당한다.

KAIST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교육과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중경이공대학은 중국 내 우수학생 선발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정복기자

### 당진시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실시

####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 개선 방안 모색

당진시가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를 9월 17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내·외부 고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고 전화응대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는 국가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부서별 협력도,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대응력 등을 조사하며,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는 유기한원 중 500개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 담당자의 전문성, 신속성, 업무 처리 공정성, 민원처리 전

반의 체감 만족도 등에 대해 전화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와 함께 전화전접도 향상을 위해 최초 수신 상태, 응대태도, 중요인사 등의 항목을 평가해 시민들의 전화 상담에 대한 공무원의 전화전접 수준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사를 추진했다”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충남도,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 천안 병천천서 ‘유조차 전복·화재로 인한 오염’ 상황 가정

충남도는 16일 천안 병천천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질오염사고 대비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도가 주최하고, 천안시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사담교에서 전복된 유조차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화수 2톤과 파손된 유조차 탱크에서 경유 1톤이 병천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훈련은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수질오염사고 방제반 긴급 투입, 오일펜스 설치 등 유류제거 작업과 수질오염 범위 확인을 위한 수질조

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유회수기와 고압분사기 등 전문 방제장비를 동원, 유출유류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훈련 상황을 재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체호규 도 환경녹지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간강하고 정정한 수자원을 보호하는 지름길은 사전 예방과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속 실효를 높인 이번 훈련은 방제요원 대응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대전대덕우체국한기위행복나눔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눔봉사단, 집배원 365봉사단, 한사랑회 참여봉사단 회원들은 16일 그동안 모아 왔던 성금으로 쌀, 라면, 생필품등을 구입하고 후원금유치에 외로운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인정이 넘치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시간을 보냈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장비 특하면 ‘고장’

## 월평균 21.7건의 고장 발생... 정기검진 차질 빚어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정기검진에 차질을 빚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검사장비 고장은 1,194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21.7건의 고장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43건, 2012년 211건, 2013년 345건, 2014년 331건으로 3년 새 2.3배나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164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지역본부 239건으로 검사장비 고장이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본부 237건, 중부지역본부 232건, 서울지역본부 209건, 호남지역본부 172건, 대구경북지역본부 105건순이다.

고장원인별로는 통신 등 제어장치·베어링 등 부속장치고장 각각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장치 고장 160건, PC고장 129건, 센서류 고장 125건순이고 낙뢰, 전자파 등으로 인한 기타고장도 194건에 달했다.

이처럼 검사장비 고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검사소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어 온도, 습도 등의 환경영향, 검사장비 계속사용에 따른 부속, 기계장치 피로, 마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이용객들은 고장 난 검사장비 교체에 따른 불편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김태원 의원은 “매년 3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공단검사소를 찾고 있지만 검사장비 고장이 잦다면 그 피해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이용객들이 받게 된다”며, “검사장비 장애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검사장비 관리 전산망 연계 등 고장 사전예방, 주요 수리부품 충분한 확보 등을 통해 고장발생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대·중소기업 협력사, 동반성장의 의미를 배운다

### 대기업과 협력사간 상생문화 조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종영)은 LG엘지생활건강 수탁기업협의회(LG생활건강 동반성장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16일 판자문리조트 컨벤션홀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동반성장 CEO(시)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인식변화와 기업간 내실 있는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LG생활건강 및 협력사 임원 13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동반성장 아카데미]는 최초로 임원급에게 종합적인 동반성장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간 상생협력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기획하고 있다.

협회의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교육 대상을 임원급으로 확대한 것은 대기업 및 협력사 CEO들의 동반성장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협력적 경영”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후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협의회 실무자 대상의 [매니저 아카데미]와 임원급 대상의

[CEO 아카데미]로 구분·확대하여 수탁기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교류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탁기업협의회가 비즈니스 정보 교류는 한편적인 기능을 넘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동반성장 CEO 아카데미]를 주최하는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협회의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협력사 임원들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동반성장 아카데미]는 [매니저 아카데미] 8회, [CEO 아카데미] 2회 포함 총 10회가 개최(14년 8회)되고, 앞으로 5회가 더 개최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 청양군 귀농귀촌 프런티어 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순항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 위해 건립



청양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를 위해 건립 중인 ‘귀농인의 집’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정산면 서정리에 자리 잡은 귀농인의 집은 전국 각지에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로

임대해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체험한 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인의 집은 2015년 충남도 군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된 귀농프

런티어 사업 중 하나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층 규모의 6세대 거주공간으로 현재 75%의 공적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경 완공해 12월중 입주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닦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주거지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귀농인의 집을 통해 생활근거지가 완전히 바뀌는 이주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의 집 건축은 인구 3만5000명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귀농프런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더욱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귀농인 증가세를 유지,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목원대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명품 교양강좌 실시

### 지역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강연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

목원대학교(총장 박노권)가 진행하는 명품교양강좌 ‘르네상스 교양특강’이 17일(목)부터 시작된다.

이번 강좌는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개방되는 이 특강은 이번 학기에도 깊이 있고 품격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격주로 진행된다.

첫 강연은 17일 ‘나는 배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언론인이자 작가 홍세화 선생이 준비하고 있다. 그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이웃사이터 편집위원 및 한겨레 기획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9월 24일에는 한국서양사학회 회장, 한국프랑스사학회 회장 등의 학술활동 이외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상임의장, ‘전국교수노조’ 준비위원장 등을 역임 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교수인 최갑수 교수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할 예정이다.

10월 8일에는 최고의 뮤지션들이 공연하는 가을 음악회로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며, 10월 29일에는 TV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큐레이터이자 작가인 김홍기 선생을 초청, ‘패셔너블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그는 ㈜우노필름(현 사이더스) 영화제작부, ㈜신세계 그룹 패션 매입부 바이어(아동복 담당) 역임하였으며 공연예술기획 전문가인 이야기 CEO, 문화관광체육부 패션산업 자문위원, 서울패션위크 심사위원 등을 하고 있다.

11월 12일에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이강서 교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주제의 강연

이 준비되어 있다. 촌철살인의 입담과 깊이 있는 생활, 평생의 연구와 강의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강의가 강연장을 소동과 감동의 시간으로 이끌 것이다.

급학기 마지막 특강인 11월 26일에는 교수이며 시인인 이문재 교수를 초청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된다.

간결하면서도 삶을 꿰뚫는 시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그는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이며, 소설시문학상, 지훈문학상,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하였고, 시집으로 『지금 여기가 맨 앞』, 『마음의 오지』, 『별빛 쏟아지는 공간』, 『공간 가득 잔잔하게』, 『제국호텔』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내가 만난 시와 시인>, <나를 위한 글쓰기> <공저> 등이 있다. 김태성기자

### 아산꽃, 추석명절

###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추석명절을 맞아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내 전통5일장 주변 도로를 한시적으로 주차허용키로 결정했다. 주차허용 시행은 추석명절 기간인 9.19~30.까지 12일간이며 허용구간은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 47기리부터 외암로 버스 승강장 3기리까지 550m 구간 양방향이다.

이번 시행은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 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해 전통5일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용환 아산시 교통관리계장은 “명절기간 중 우리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혼란을 방지할 예정이고 2월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압제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열기 높아

### 내달 20일 이호선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세가지’란 주제로 강연



지난 1일 개강한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이 계속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시민들로 강연장이 가득 채워지며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정호승 시인이 강연자로 나서 ‘내 인생에 힘이 되는 시’란 주제로 제3강 교양강좌 가열했다.

이 날 정호승 시인은 시를 직접 낭독하고 음악으로 만들어진 시노래도 함께 들려주며 시(詩)에 얽힌 자연과 시인이 시 속에 담고 했던 마음과 메시지를 전해줘 시(詩)에 담겨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만남과 사색의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전공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리더과정과 시민문화선도과정도 관심과 높은 학습 열기로 큰 호응을 얻으며 우리고장 바로 앞기에 앞장서고 있다.

내달 20일 오후 3시부터 고마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네 번째 교양강좌는 이호선 강사가 ‘행복한 변화를 위한 세가지’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장은 무료로 별도의 신청 없이 선착순 400명으로 공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종문 교육체육과장은 “공주시민대학의 열기는 성황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

###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화합의 장위해 마련한 것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체험행사”가 16일 경기도 안성팜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승현)가 다문화가족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전통을 식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과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족과의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 등 다문화가정 10가구 40여명이 참가했다.

박승현 본부장은 “2009년부터 매년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한국문화체험, 전통음식 체험 등 가족과의 화합의 장을 열고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충남학운위연합회 “누리과정 정부가 지원해야”

## 학생수 기준 교부금 산정방식, 소규모학교 통폐합강요도 문제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이하 학운위연합회, 회장 안홍진)가 16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하 효율화 방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운위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비중 확대 방침 철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증원 축소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안홍진 학운위연합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효율화 방안이 현실화 되면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예산편성에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밝히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직접 편성해 줄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정진을 존중하여 농어촌교육에 대한 배려를 촉구 하였다.

지난 9월 8일 정보에서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내년도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약 1,100억 정도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는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유초중고학생들의 교육경비에서 빼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충남 도내의

경우 이를 환산하면 대략 학생 1인당 33만 원 정도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 되므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기준이 정부의 안대로 바뀌게 되면 충남교육청은 당장 내년에도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에서 학습수 비중이 높았던 방식에서 학생수 비중을 급격하게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현재의 학생수 비중 31%를 5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누리과정

추가 부담 1,100억과 학생수 기준 교부금 감소 500억 등을 합하면 세수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충남교육청의 예산은 1,200억~1,300억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25.27% 상향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국가부담 법률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현행 유지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법정교원 확보 등을 촉구했다.

내포=이지용기자

### 논산소방서, 상월명품

#### 고구미축제 안전 '이상무'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금강대교와 대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상월명품고구미축제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행사장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장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관기관 사전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 논산소방서는 행사기간 중 소방안전지휘본부를 설치하여 행사장 소방안전대책 종합상황 관리 등 임무를 총괄하고 유동 순찰을 통해 행사장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월면 전담대와 구급대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상월면 의용소방대로부터 구성된 119 안전순찰팀이 행사장 일원에 대한 순찰 근무를 통해 행사장 주변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등 안전지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논산=한대수기자



### 금산소방서, 신규 소방차 안전기원제

#### 15일 복진119안전센터에서 행사 진행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15일 복진119안전센터 차고에서 신규배치한 소방펌프차량과 구급차량 무사고 안전기원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조영학 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와 도의원 등 초청내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각종 재난현상

활동 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조영학 금산소방서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활동 수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현장활동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금산소방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김남규기자

### 당진소방서, 소방관 직업 체험교실 운영

당진소방서(서장 김복근)는 지난 15일 13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합덕중학교 학생 33명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중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진소방서는 학생들이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 ‘미래소방관 체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직업 탐색 및 꿈과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안전을 배우고 익히도록 운영한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중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산서, 읍무운전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5일, 아산경찰서 사회의실에서 경찰서 및 지역관서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관으로서 읍무운전 근절에 모범이 되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4년제 대학, 7명 중 1명은 '경영경제계열 학과'

#### 언어문학계열 학과 12년 대비 15년 59개과 줄어들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들이 모집한 학생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학과계열은 경영경제계열이었다. 경영경제계열학과 학생들은 2012년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전체 입학정원의 14.5%인 48,417명에 달해 전체 입학정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에 비해 가장 많은 입학정원이 축소된 계열은 언어문학계열로 입학정원이 2,778명 줄었고, 학과도 59개가 줄었다.

설학과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과계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한 중계열 단위로 분석할 경우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계열은 인문계열의 언어문학계열로 2,778명이 줄었고, 학과도 59개가 줄었다. 그 다음으로 경영경제계열 입학정원이 많이 줄어 2,077명이 줄었으나 학과는 오히려 18개 늘어났다. 이외에 사회과학계열, 약학계열, 생물화학환경계열, 수리물리천문지리계열, 인문과학계열의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학계열의 경우 약학전문대학원의 설치등으로 학부입학정원이 대학원 정원으로 변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취업을 중심의 정부의 대학평가 정책으로 인해 순수·기초학과가 축소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며 “산업계 수요에 의한 정원감축 과정에서도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학과로는 앞서 설명한 사회과학계열이 29개 늘었고,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던 의료계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 2015년 4년제 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대개계 기준으로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은 입학정원이 증가한 반면 사회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입학정원은 감소했다.

이에 반해 입학정원이 증가한 계열 현황을 보면 의료계열이 1,440명이 늘어 가장 많이 늘었고, 1,060명인 늘어난 간호계열이 그 다음이었다. 이외에 치료보건, 화공, 농림수산계열이 정부의 대학교 소개력에 의한 정원감축 과정에서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학과로는 앞서 설명한 사회과학계열이 29개 늘었고,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던 의료계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취업을 중심의 정부의 대학평가 정책으로 인해 순수·기초학과가 축소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며 “산업계 수요에 의한 정원감축 과정에서도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학과로는 앞서 설명한 사회과학계열이 29개 늘었고,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던 의료계

입학정원 감소가 많은 계열은 사회계열과 인문계열로 각각 4,353명, 3,805명이 줄었다. 그러나 인문계열의 학과가 55개 줄어든 반면 사회계열은 40개 학과가 증가했다. 인문계열에서 상대적으로 통폐합이 많이 일어났고, 경영경제·행정·도시·지역·언론 등 실용학문 위주의 사회계열에서 신

입학정원 감소가 많은 계열은 사회계열과 인문계열로 각각 4,353명, 3,805명이 줄었다. 그러나 인문계열의 학과가 55개 줄어든 반면 사회계열은 40개 학과가 증가했다. 인문계열에서 상대적으로 통폐합이 많이 일어났고, 경영경제·행정·도시·지역·언론 등 실용학문 위주의 사회계열에서 신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취업을 중심의 정부의 대학평가 정책으로 인해 순수·기초학과가 축소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며 “산업계 수요에 의한 정원감축 과정에서도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학과로는 앞서 설명한 사회과학계열이 29개 늘었고,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던 의료계

### 道公 대전충청본부, 체납차량 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

#### 고속도로 나들목서 상습체납차량 충청남도·충남경찰청과 합동 단속 실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경일은 지난 15일 충청남도, 충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통행료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4월 30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력 ▲체납차량 및 범법 차량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과태료 대환 ▲징수 기법 상호 정보 교류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예산수역사 나들목에서 펼쳐진 이번 합동단속은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및 충청남도와 예산군, 충남지방경찰청 등 30여명의 인원과 고성능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 최

첨단 장비도 동원됐으며 특히, 체납액 납부 홍보물을 제작해 통행료 차량에 1000부를 배부했다.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합동단속 결과, 3개 기관은 총 1120대의 통행료 미납 차량 38대를 적발해 790만원 과태료를 받아냈다.

3개 기관 자동차관련 총 미납금액은 1125만 건에 2108만원으로 충청남도는 자동차세 등 161만 건에 1379만원, 충남지방경찰청은 과속·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74만 건에 469만원,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금이 890만 건 260여만원이다.

고희석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체납반장은 “불법범의차량 등 상습체납차량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은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납부 및 의식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세종시, 산후조리원 합동안전점검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7일 세종지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신생아의 감염 위험이 높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진행한다.

세종시와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보건소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소방·건축·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등의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대피훈련, 직원교육 실시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세종=김정환기자



서천췌,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경향 교양아카데미' 개최 서천경찰서(총경 박희용)는 16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본서 및 지부대·파출소 전 직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교양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서산췌, 한서대 4대악근절 미니콘서트 열여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와 한서대가 지난 5일 호수공원 원형분수대 앞에서 4대악근절을 위한 미니콘서트를 가졌다.



공주시, 추석맞이 탈북민사랑 나눔 행사 가거 공주경찰서(서장 이인복)는 지난 9월 15일 공주시 인근식당에서 경찰서장, 보안협력위원(위원장 류원희), 탈북민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탈북민을 위한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



청양군,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 캠페인 실시 청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청양경찰서 및 청양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청양초등학교 일원에서 학교주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산소방서, 소·소·소·심 체험교육장 운영 조기 안전문화 정착으로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16일, 아산소방서를 방문한 자연어린이집 외 3개소 원생 및 지도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소·소·소·심 체험교육장'을 운영했다.



철도공사대전충청본부, 대전보훈청과 고령 국가유공자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지난 15일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과 함께 국가유공자 양 모(82, 금산군)씨 가정을 방문,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 “추석 연휴 귀성 26일, 귀경 28일 가장 몰려!”

## <사람인> 직장인 10명 중 6명 을 추석 연휴 귀향할 계획 있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을 추석 연휴에 귀향할 계획이 있으며, 귀성은 추석 전날, 귀경은 추석 다음날 가장 많이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장근)이 직장인 1,044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귀향 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63.4%가 귀향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

결혼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

이 71.4%로 ‘미혼’(59.4%)보다 더 높았다.

그렇다면 귀성 예정일은 언제일까? 절반 이상(55.4%)이 추석 전날인 ‘26일’을 선택했다.

이어 연휴 시작 전인 ‘25일 이전’(26.3%), 추석 당일인 ‘27일’(16.2%) 등의 순이었다.

귀경 예정일은 추석 다음날인 ‘28일’이

35.2%로 가장 많았고, 추석인 ‘27일’(27.2%)과 대체휴무일인 ‘29일’(26.4%)이 뒤를 이었다. 교통편은 주로 ‘승용차’(64.7%)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밖에 ‘고속버스’(17.1%), ‘기차’(8.2%), ‘지하철’(4.4%) 등이 있었다.

한편, 귀향 계획이 없는 직장인(382명)은 그 이유로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서’(29.8%),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연휴가 짧아서’(18.1%), ‘지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7.3%), ‘출근해야 해서’(11.5%), ‘교통대란이 걱정되어서’(10.5%), ‘여행 등 다른 계획이 있어서’(9.4%),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8.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들은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집에서 휴식’(58.1%), ‘복수응답’, ‘여가 및 문화생활’(29.8%), ‘친구, 지인과 만남’(23.3%), ‘이직 준비’(17.3%), ‘여행’(13.1%) 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정복기자

##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초등 특수진로·직업 체험학습 특수교육대상학생, 다양한 직업선택 체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유·초등 특수진로·직업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진로·직업 체험학습에서는 관내 유·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학생(36명), 특수교사(17명), 특수교육실무원(5명) 등 총 58명이 서울 잠실에 위치한 ‘키자니아’를 방문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서비스, 주유소, 승무원 등 고객 서비스, 식품산업, 의료,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직

업을 탐색하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체험학습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향상하고, 사회규칙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성향을 파악하며, 단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배양하고 폭넓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내포=이지용기자



**보령 청소초, 학교 폭력 예방교육 실시** 지난 15일 전교생 및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제3차 인성 및 친구사랑 주간을 맞이하여 친구 사랑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꿈과 신바람 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당진 한정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법 특강** 당진 한정초등학교(교장 성기동)는 지난 15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레크리올 특강을 실시했다. 미래이비발달센터 민소윤 강사는 인터넷·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양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법과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서산 예천초, 댄스로 비만 NO! 건강 UP** 9월 15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주 3회 ‘비만 NO! 건강 UP! 건강교실’을 서산시보건소 지원을 받아 운영에 들어갔다. 교내 체육관에서 아침 8시부터 50분간 경쾌한 음악에 맞춰 생활체육지도 강사의 지도로 댄스도 배우고 건강도 다지게 됐다.



## 책과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책놀이터’ 운영

### 청양 남양초, 다양한 독후활동 및 창의적 예술체험 활동

남양초등학교(교장 김영화는)는 15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첫 수업을 진행하였다.

청양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책 놀이터』 프로그램은 독서습관 형성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활동 체

현기회를 제공하여 ‘책 읽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1~2학년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10회 과정으로 지정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양=정성범기자

## 대전시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등 조기 집행

### 관내 초·중·고등학교시설 공사·물품대금 102억 2천만원 지급 계획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장 설동호)은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대전해광학교, 대전문성초, 문지유치원 등 39개의 학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5일까지 현장근로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할 공사·물품대금은 102억 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성·준공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실시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최대 3일 이내로 정하는 등 공사(물품)대금을 추석 연휴 전날까지 지급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과 가정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이석학 재정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등의 조기집행으로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업체의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세종시교육청, 도시·농촌 간 공동학구 운영

### 도시 지역의 과대·과밀 해소·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활성화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시·농촌 공동학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지역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활성화를 꾀하는 취지다.

이번 도시·농촌 공동학구는 규모가 큰 도시학구에서 작은 농촌학구로의 일방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인구 감소 및 개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으로 발생한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도시지역 일부 학부모의 전원학교 전·입학 희망이 반영됐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동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7월 기준 1만 67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54명(143.1%)이 증가한 반면, 면지역 학생 수는 같은 기준 7.9%(346명)나 감소했다.

공동학구가 시행되면 동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이전 없이도 면지역의 학교를 선택하여 전·입학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학교 시설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전·입학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생유출을 막기 위해 면지역 학생은 동지역 학교에 전·입학할 수 없다.

세종=이정복기자

## 금산교육지원청,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실시

###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대화... 긍정의 소통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은 16일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를 유초, 중고 학부모 136명을 대상으로 금산다락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학부모연수는 포웨이 행복연구소 문은식 소장의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대화, 긍정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손중대 교육장은 “학부모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획기적인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서두로 시작하여 자녀의 교육에 유행을 따르지 말고 주관이 뚜렷해야 하며 올바른 주관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지런히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어떤 얼굴로 가족을 대할까?”, ‘밥은 얼마나 즐겁게 먹나요?’, ‘자존감을 살려주세요’ 등 생활에서의 경험과 생각거리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생각을 주고받으며 연수가 진행됐다.

문은식 소장은 폭발적인 정보와 지식의 범람, 과학의 발달로 인해 교육이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역량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즈음, 자녀를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지원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정보에 민감하며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했다.

금산=김남규기자

## ‘공공기관 직업체험의 날’ 주간 운영

### 논산계룡지역, 17개 기관이 중학생 523명 대상으로 실시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오광식)은 16일부터 24일까지 「논산계룡 지역 공공기관 직업체험 주간운영」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공공기관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논산시청, 논산문화원, 논산경찰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육군본부,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논산계룡지역의 17개 기관이 중학생 523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논산계룡 지역 공공기관 직업체험 주간운영」은 공무원 직업계열 진로체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단순 견학형 체험활동이 아닌 행정업무를 참관하고 체험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와 근무환경, 직

업특성을 이해하며 공무원이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16일 논산시청은 8개 부서, 진로특강 및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여 시청의 하는 일을 궁금해 하는 학생들에게 공무원 체험을 구체적이고 현장감있게 실시한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직업체험의 날 주간 운영은 진로체험 지원전산망 ‘꿈길’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의 희망을 중심으로 매칭했으며, 체험처 및 프로그램 등록을 완료하여 추후로도 ‘꿈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및 체험처의 직업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논산=한대수기자



**이산성심학교, 신나는 교실 극장** 지난 14일 전교생이 찾아가는 예술공연 프로그램, 과학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했다. 교과과정에서는 해볼 수 없는 대형과학실험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서 보여주고 재미있게 설명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심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 자연 채광에서 맛보는 미식축제 열린다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복합문화공간 구성하는데 초점



는 어린이들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Culture & Play Zone’, 11층에는 미식가들의 핫플레이스 ‘Gourmet World’, 12층에는 온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 ‘Family Park’로 구성됐다.

중부권 대표 백화점인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가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상층부(9-12층)공간을 새롭게 리뉴얼해 선보인다.

이번 리뉴얼은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비효율 매장 공간을 개선하고, 가족들의 문화놀이터이자 나만의 라이프스타일 충전소인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 층별로는 9층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안을 위한 ‘홈리빙 전문관’, 10층에

■ 자연채광을 맞으며 식지(食地) 순례하는 Gourmet World

이번 리뉴얼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11층 ‘고메이 월드(Gourmet World)’는, 충청지역에서는 만나기 힘들었던 청담동, 홍대, 이태원 등의 맛 집 19곳을 선보이며 지역 최고의 맛 집 순례 공간을 구성했다.

■ 가족들의 문화 놀이터·나만의 라이프스타일 충전소 제안

문화 경험과 휴식이라는 테마에 집중한 10층과 12층은 변화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송병배기자



● 동 정 ●●●

정례브리핑 개최



이준희 세종시장은 17일 오전 11시에 정읍실에서 정례브리핑 개최.

장곡면 이등복지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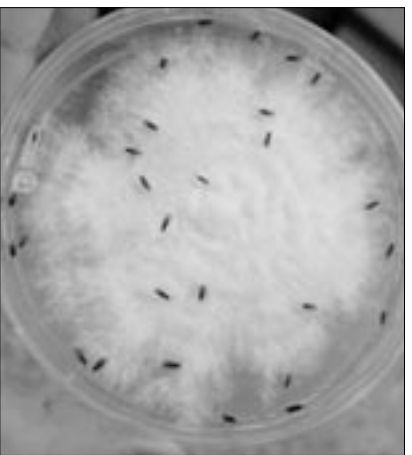
김석환 흥성군수= 17일 오전 9시 30분 장곡초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장곡면 이등복지관 행사 참석.

2016년도 시책토론회



황성곤 예산군수= 17일 오후 1시 20분 덕산리수습과개술 테마관에서 열리는 제32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참석, 오후 2시30분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도 시책토론회 참석. 오후 7시 부한천 둔치공원에서 열리는 2015 예산 합합페스티벌 전야제 참석.

‘은행열매’ 추출물 이용 버섯파리 방제기술 개발



충남농업기술원은 순천향대 RIC(센터)장 송호연과 공동으로 은행열매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양송이버섯 재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버섯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버섯파리는 버섯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수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유충의 경우 버섯 배지를 직접 기해하면서 균사를 절단시키고 심한 경우 버섯 자실체 속으로 파고 들어가 기해 흔적을 남긴다.

또 버섯파리 성충은 양송이가 자라는 균상을 옮겨 다니면서 응애나 세균 등의 매개체로 균상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양송이버섯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섯파리 방제가 중요한 일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은행 열매에 있는 빌로발라이드(Bilobalide) 또는 징코라이드(Ginkgolides) 성분을 활용한 버벌구, 진딧물, 응애 등의 살충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보고된 바 있으나, 친환경 재배를 위한 버섯파리 방제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농가에서는 가을철에 수확된 은행열매를 건조시켜 1kg당 예탄을 2ℓ에 담가 1개월 실온에 둔 다음 추출된 양액을 방장보관하면서 균배양기, 복토후, 버섯밭이기에 관수시 5배로 희석해 사용하면 된다.

이를 활용할 경우 버섯파리 방제효과가 70% 이상으로, 수확량이 13% 이상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업기술원 이병주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은행열매 추출물 버섯파리 방제법은 양송이버섯 뿐 아니라 느타리 및 표고버섯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재배로도 시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이지용기자

예산군, ‘아름다운 기억 보고 싶은 예산’ 계획 발표

유적지·전통 살린 관광단지 조성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는 16일 오전 군청 브리핑실에서 ‘아름다운 기억,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밝혔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정례 브리핑에서 ▲경건하고 품격 있는 유적지 관리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재 보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휴양림 운영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관광단지 운영 등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윤봉길 의사 유적지내 경관과 어울리는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전통 한옥형태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설치 201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적지 시설물 정비 운영 결과로 바탕으로 연못과 소나무 숲을 연계하는 소공원 조성을 통해 배움순 여사 묘소와 소나무 숲까지 관람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추사고택림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도 사업공모에 신청을 완료했으며 추사의 일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협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구성할 방침이다.

맑은 공기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가족형 휴양지로 자리 잡고 있

는 봉수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산책, 환경개선, 눈썰매장 보강 등 지속적인 시설신축 및 보완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손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관광단지와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은 안전 부적합한 관정을 받은 기존 야외 공연장 무대를 예당호와 어우러지는 공연 무대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결되는 경관 조망 산책로 개설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예당호와 의종은 형제공원, 예당호 생태공원, 슬로시티를 묶는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명락 소장은 “현재 사업소는 장기적인 관광계획이나 휴양림 보완계획 등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을 이관 받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문화재와 유적지, 관광지, 휴양림을 관리해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세종시교육청,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 토크쇼

학생·교사·학부모들 공감대 확산

남북관계 회복 및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 토크쇼’를 개최했다.

광복 70년과 6·15 남북 공동선언 15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크쇼는 세종시의 중·고 학생회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통일교육 담당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 하늘을 날다’라는 표어와 ‘통일은 과정이다’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열린 토크쇼는 정원숙 통일 및 운영위원의 사회로 토론 마당, 관객과의 대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비행기를 날리는 통일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마당에서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해당 분야 전문 언론인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의 역할 그리고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세종교육의 통일교육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최서현 학생(두루중 3학년)은 “이번 토크쇼를 통해 통일이 막연한 미래가 아닌 곧 다가올 현실로 우리 나라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면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세종=이정복기자



“가을 대하철이 돌아왔어요”

홍성군, 제20회 남당항대하축제 오는 19일 개막

홍성군은 ‘천고마비, 가을 대하의 맛’을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부면 남당항에서 대하축제가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홍성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태)가 주관하고 홍성군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19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주·야간 체험행사와 시식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19일 개막식에는 풍물패 길놀이, 가장행렬 등 식전행사와 연예인 축하공연, 노래자랑,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추석연휴 기간은 해양수산부 합선터에 마련된 주무대에서 매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연예인 축하공연과 맨손잡이 대하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축제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1월 2회에 걸쳐 남당항 대하잡기 대회가 개최되며 참가비는 어른 1만 원, 어린이는 5000원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남당항 조개 껍데기 리폼 체험, 조개껍데기 목걸이 만들기 체험, 축제 방문객들의 모습을 재미있는 캐리커처로 그려주는 캐리커처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이 준비됐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소원풍등 날리기 체험, 야간 프로젝트 영상 촬영 등의 야간 행사와 함께 홍성군 대표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와 1월 2회 대하경매, 홍성군 학생 장기자랑 등의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세종시 가로수 위원회 개최

지역적 특성 살린 효율적 가로수 조성·관리방안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희)가 지난 14일 시청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6인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토질을 감안해 ▲신도심 지역 고사 가로수 대체 수종 ▲가로수 관리방안 마련 ▲금남면 용수천·장군면 용안리 식재 수종 등을 심의·자문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명품 세종시에 걸맞은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에 선정된 수종을 가을에 식재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로수 관리지침을 적용

하여 신도심 가로수 시공 주체인 한국도지주방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불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 철저한 관리로 추가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충남도 ‘성희롱 예방’ 집안단속 나선다

5급 상당 관리자 대상 교육·예방·지정활동 지속 추진

충남도가 최근 공직자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도청 내 5급 상당 공무원 280여 명을 대상으로 16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상화 교수설장을 초빙해 직장 내 발생하기 쉬운 성희롱 사례와 관리자의 자세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 교육에 앞서 성범죄 피해 신고절차와 고충상담 방법 등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 처리 매뉴얼을 안내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 ‘남녀평등시방방’을 설치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접수 및 상담 ▲사건 처리를 위한 부서간 협조·조정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충남넷 홈페이지에 성희롱 인터넷신고망을 운영 하는 한편, 성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사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교육을 실시해 조직 내 성폭력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청 내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성범죄는 없으나 위험요소는 항상 내재해 있다”라며 “성희롱의 개연성이 높을 관리자부터 성희롱 교육을 실시해 점차 전 직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행복도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 도입

토지공급·건축허가·분양신고·건축물 사용승인 총 4단계 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 관계자(건축주, 관리인, 분양자, 인차인 등) 스스로가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법령을 숙지함으로써 위반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초기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 건축법 위반행위 금지 조건을 부여하고 관리규약과 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주 발생한 위법 건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건물 층수 및 면적을 증가시키는 불법행위로 사업주가 건물의 단층을 창고나 영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층 구조로 변경한다.

이 때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은 복층구조 설치(부단정축)가 건

축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지만 묵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단계별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행복청의 입장이다.

행복청 추호식 건축과장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등 공공성 훼손과 사회적 비용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령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행복도시 둘레길 소책자 배포

공유·소통과 협력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둘레길을 소개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도지주방공사(이하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도시 둘레길의 구간과 명칭, 주요 명소에 대해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소책자(팸플릿 3,000부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책자 발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둘레길 구간(코스)별 명칭, 연장, 소요시간과 함께 각 둘레길과 연계된 옛 지명, 유래, 역사적 유적, 명소 등을 수록했다.

또한 사진과 삽화 등 다자

인적인 요소를 가미해 재미있고 친근한 이야기로 구성했다.

소책자는 주민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밀마루전망대, 세종호수공원 등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소책자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누리사랑방(블로그), 누리소통망(SNS), 소셜지(뉴스레터) 등 바로이음(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열 행복청 도시특별환경팀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팸플릿)를 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용객들이 행복도시 둘레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예산군은 ‘의좋은 형제마을’

예산군은 ‘의좋은 형제마을’이 지난 15일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을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날 콘테스트에는 총 5개 분야로 구분해 시·군 분야 2개(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마을 분야 3개(소득채널, 경관환경, 문화·복지)로 16개 시·군 27개 마을이 참가했다.

‘의좋은 형제마을’은 문화·복지 분야에 참가해 ‘자연음악’을 소개하는 퍼포먼스와 대중음료시터의 소개 및 탈쟁이미술관 개관 등을 통해 주민만족도가 ‘90%이상 행복하다’는 결과 등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의좋은 형제마을’은 이번 수상으로 상금 2000만원과 마을 인증패, 농림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 기점인 센터비를 획득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동정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김홍장 당진시장은 17일 오전 9시 30분 고대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3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 오후 5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원도심 로데오페스티벌에 참석.

전시관 오픈식



이재광 당진시의장은 17일 오전 9시 40분 당진1동에서 열리는 당진1동 이동의정실에 참석, 오후 1시 40분 고대면에서 열리는 고대면 이동의정실에 참석, 오후 6시 심훈전시관에서 열리는 제39회 심훈상록문화제 전시관 오픈식에 참석.

시니어클럽 개소식



한상기 태안군수는 17일 오후 2시 태안을 동문리에서 열리는 태안시니어클럽 개소식에 참석.

벼농사 종합 평가회



이석화 청양군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군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에서 열리는 2015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17회 칠감산장 승문회추계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

남면 다문화가정 간담회 열려

청양군 청남면(면장 김종섭)은 16일 관내식당에서 다문화 가정 22가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여러 국가에서 청남면으로 정착한 이주 여성들과 배우자, 자녀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과 각 다문화 가정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했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영주씨는 "올해 두 번째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 친분이 없던 가정들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게 되었으며, 지원정책 등을 안내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종섭 청남면장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간담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주 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군과 면이 협력해 적극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당진시 심훈상록문화제 내일 개막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려... 전 시민이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발돋움

당진시가 제39회 심훈 상록문화제를 당진시청, 필경사, 심훈기념관 일원에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새벽빛에서 태양의임종까지'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상록문화제는 문학 행사 강화로 상록문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전 시민이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발돋움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행위원회(위원장 한기흥)는 ▲심훈문화연구회 발족식 및 심포지움 ▲심훈상록수 연극공연 ▲심훈문학대상 수상자 시인 고은의 문학강연회 ▲전국 심훈 시 낭송 대회 ▲심훈광판벨 ▲심훈음악 풍쿠르 문학행사 강화로 문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심훈청소년 국악제 ▲청소년 디베이트 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청소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가훈씨주기 ▲심훈시화 부채만들기 ▲네일아트 ▲팔찌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개최해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한편 상록문화제 본행사에 앞서 16일에는 필경사일원에서 추모제가 진행됐으며 행사기간 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는 서예·미술·문인화·사진 전시행사가 필경사와 시청 일원에서는 심훈시 깃발전 및 아내바다장터가 운영된다.

당진=최근수기자

군민 평생학습권 보장 '평생교육대학' 운영

태안군,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등 중장기 대책 마련



태안군이 군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태안 군민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한다.

태안군은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 부군수 및 각 부서장과 공주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태안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군 관계자는 평생교육대학 운영과 함께 읍·면 행복학습센터 건립,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등 군민 평생교육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 군 평생교육의 지향점을 선정하는 전략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군은 군민평생교육대학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수요 충족 및 군민들의 학위·자격증 취득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군민대학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가 ▲자격·학위취득 과정 ▲시민교양과정 ▲문화교육과정 ▲교양과정 등 우수한 커리큘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기회가 적은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읍·면 행복학습센터'를 건립, 생활권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태안읍을 기준으로 먼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이나 주민

자치센터 등 기존 학습 공간 및 유휴시설을 학습센터로 삼분 활용해 생활권 평생학습의 거점 기관 역할을 담당케 할 계획이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시책과 더불어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태안학(學) 개발 등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평생학습도시 태안' 건설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기 군수는 "최근 각종 지식의 폭발적 생성에 따라 지식생명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한 평생학습의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는 추진에 임하고 상위계획에 군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자신만만 건강스쿨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

청양군이 매주 목요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신만만 건강스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고혈압 약물치료자 29명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간 4회에 걸쳐 집합 교육, 영양관리(내 잔막 알기 체험 등), 자기관리법, 운동법 등에 대한 주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신만만 건강스쿨은 각 관련 기관별 체계적인 업무분담 및 협업으로 추진돼 참여자의 집합 지식도를 높여주고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는 참여자 모집 등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홍보 및 장소제공, 관내 의·원장은 고혈압 관련 집합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청양군보건의료원은 고혈압 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및 운동법 등 대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군은 유관기관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호 업무분담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



로 예산 집감효과는 물론 정부3.0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해 대상

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시 농지 불법전용 단속 강화

당진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지 불법전용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량 생산 기반인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를 불법

으로 훼손할 경우 원상회복과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준법 의식을 높이는 한편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원래대로 복원해야 하며, 처벌도 받는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관내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

의시 농지불법전용 점검·단속 홍보와 인터넷 게시판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사전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 사용 ▲신고 및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

용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한 농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인구주택총조사 관리요원 교육

청양군은 통계청과 공동으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문화체육센터에서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조사관리요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교육을 가졌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한 시점

에 한 국가의 모든 사람·가구·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평가·분석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다.

군은 관내 모든 내·외국인, 가구, 거처에 대해 인터넷 또는 방문

면접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64개 항목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 동원되는 인력은 공무원, 조사관리요원, 조사원 등 총 100여명으로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군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내달 6일과 7일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차례 교육을 더 실시할 계획이며 연

론, 온라인, 모바일, 옥외 및 교통 광고 등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 추진 일정, 진행과정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조사인 만큼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사업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우리/동네



영인면, 폐기물 수거·꽃동산꾸미기 행사 실시
아산시 영인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기선, 손미옥)는 지난 15일, 남·여지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마을별 수집된 농약병 및 페비닐 등 5톤을 수거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병병 등의 수거와 함께 주요도로변 등 마을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 실시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당정면, 합동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산시 당정면은 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15일, 아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다자동차검사업조합 운영4동에 후원물품 기부
충청남도다자동차검사업조합(이사장 주관선)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운영4동 행복키움추진단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한 물품은 30만원 상당의 식료품(라면 20박스)으로 운영4동 행복키움추진단에서 추천하는 관내 소외계층 대상자 20가구에 추척맞이 후원물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안군 야간운전 '걱정 뚝'

발광형 LED 표지판 설치해 주민 도로안전 확보

태안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및 주민들의 야간운전 시간 전 확보를 위해 주요 도로에 발광형 LED 표지판을 설치했다.

군은 태안을 화능초등학교 앞과 32번국도 태안군청 방면 진입로 등 역주행 위험성이 있는 주요 도로 2곳에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발광형 LED 표지판을 설치, 주민 및 귀성객들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날 표지판 설치의 지난달 4일 태안읍 남면리 일대 도로에서 야간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사고 방지를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 지역에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특히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야간에 빛을 내는 친환경 방식을 채택해 의미를 더했다.

군은 앞으로 LED 표지판 설치를 군 전역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보행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적극 나서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추석을 맞아 표지판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교통시설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의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추석 명절에 대비, 주요 도로에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급회전 도로 표시 ▲중앙선 도색 ▲차선규제봉 설치 ▲도로변 잡초 제거 등 도로 안전을 위한 추석명절 대책 추진에 나서며 귀성객 맞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호 가령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려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우리/동네



### 정부 3.0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진행

서천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위해 마련

서천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천군지사(지사장 여인덕) 주관으로 오는 9월 22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천군청 회의실에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내변호인 2명과 외부변호사 1명이 직접 방문해 이루어지는 이번 무료 상담은 지적측량, 토지, 건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과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으로 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마련되었다.

여인덕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천군지사장은 "이번 무료상담 서비스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라며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서천군 대회의실에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 예방접종 무섭지 않아요

논산시보건소, 어린이 인형극 공연 예방접종 높인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16일 오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53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인형극 '사랑이와 함께하는 예방접종 완전정복'을 공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낮추고 예방접종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인형극은 예방접종을 모두 끝낸 주인공 '사랑이'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야 나쁜 세균을 물리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구성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이승선 논산시보건소장은 "인형극을 통해 주사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앞장서 아동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논산=한대수기자



### 부여군 구조·응급처치 교육 실시

10월 중순까지 관내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5~16일 관내 9개 읍면의 이장, 부녀회장,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읍면을 순회하며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달 4일 구급차 운전원, 교통경찰 등의 무교육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순천향대학교 응급의학과 김영기 교수를 초빙하여 응급구조사 안전수칙, 각종질환 응급처치와 구조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기본적인 인명 구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보건의 관계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배워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인 만큼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응급처치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 기자

# '변화·도약' 실현 위한 시책 발굴

천안시, 2016년 시책구상보고회...신규·보완시책 468건 사업추진타당·효율성 검토

천안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6기 2년차의 역동적 변화와 합작 도약을 위한 '2016년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건의 신규시책과 269건의 보완발전시책 등 총 468건의 시책에 대해 사업추진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했다. 천안시는 올해는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 반영과 국도비 확보 등 충남도·중앙부처와 업무 연계를 위해 지난 해보다 보고회 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로는 ▲100만 미래도시 신성장동력 정책개발 추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 진력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원도심 재

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신규 시책으로 ▲행복천안 미래비전단 운영 ▲시정홍보 웹드라마 제작 ▲청렴연서제 시행 ▲민원실 근무 역지사지 체험 ▲전안 소재

독립영화 제작 ▲유학생 인력풀 활용 일자리 창출 ▲시민과 하나되는 공무원 재능기부 등이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천안시 복지재단 조기 정착·활성화와 K-뷰티 테마파크 조성,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운영, 서민 임대주택 보급사업,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도시재생선도사업 등 당면 현안과제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본영 시장은 "내년도는 민선6기 전반기의 성과를 도출하고 공약 등 현안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힘써야 할 때"라며 "시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제1회 논산시 복지박람회 열려

'행복은 나누고 희망을 더하는 복지논산!' 주제로 열려

논산에서 행복은 나누고 희망을 더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함호갑)가 주관하는 '2015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논산시 복지박람회'가 오는 19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활동가와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50여개의 복지관련 기관·단체에서 40여개의 다양한 문화·복지 부스를 운영한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상식도 갖는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상식도 갖는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선 행복과 희망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의 특징을 살펴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6개의 마당을 구성, 다양한 홍보·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제5회 장애인문화예술제'와 '제5회 아동친화행복가득 나눔장터'가 동시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또 수화공연 및 복지퀴즈대회, 휠체어체험, 시각장애인체험 등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마당과 추억의 먹거리, 사랑의 것갈주먹밥나누기, 희망의 종이비행기를 잡아라~ 등 신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누군가를 위한 복지를 넘어 모두를 위한 문화가 될 때 소외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사라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논산시가 복지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한대수기자

### "2015계룡군문화축제" 차 없는 거리 조성

엄사사거리↔국민은행↔계룡대로 구간 차량 통

계룡시시장 최홍묵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2015계룡군문화축제 기간 동안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비해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일반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불편사항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 수 있는 교통대책 홍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자가용 이용 안하기와 대중교통 이용하

기 등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성공축제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 계룡대 비상활주로와 엄사지구, 종합운동장, 새터산공원 등의 행사장에는 4개 구간 12대의 셔틀버스를 30분 간격으로 투입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해 군,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교통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제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는 엄사 사거리에서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계룡=주선웅기자

### 부여군-뉴저지주 펠팩시와 우호협력관계 맺어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8일 세계유산 도시 부여의 아름다움과 고프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뉴저지주 펠팩시즈파크 이종철 부시장을 비롯한 뉴저지주 하원의원 고든 엠 존슨(Gordon M. Johnson), 뉴저지주 펠팩시즈파크 시의원 크리스토퍼 제이 정(Christopher J. Chung)을 부여군 명예군민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고프레 농특산물의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인 관광객 유치 등 부여군

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이종철 부시장은 부여군 지역인사와 인연이 있어 고프레 농특산물 홍보와 경제교류 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번엔 국제적 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다. 이용우 군수는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 뉴저지 시민들과 함께 백제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여=이정복기자

### 숙박업 위생서비스 향상 위한 위생교육 실시

천안시, 16일 영업주 300명 대상 위생수준·친절서비스 등

천안시는 16일 사한숙박업중앙회 천안시지부(지부장 정경재) 주관으로 숙박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2015년도 기존영업자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숙박업 300개소를 대상으로 천안시 추곡센터에

서 진행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숙박업 영업자들에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숙박업소의 위생수준 질적 향상과 업소 서비스 친절 교육, 달라진 공중위생법 해설 등 공중위생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구본영 시장은 "외지 방문객에게 제일 먼저 천안시를 알리는 선도자로서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 환경조성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천안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

최되는 천안호텔특별축제 및 2016년 전국제전에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등 위생업주들의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전문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동 정

천안여성영화제 개막식



구본영 천안시장= 17일 오후 2시 천안박물관에서 제4기 시민대학에서 천안학을 강의하고 저녁7시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되는 2015천안여성영화제 개막식에 참석.

합동 취임박람회



황명선 논산시장= 17일 오전 10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엄마순찰대 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오후 2시 국민체육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논산시 합동 취임박람회에 참석.

시책구상보고회



최홍묵 계룡시장= 17일, 오전 9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6년 시책구상보고회 참석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노박래 서천군수= 17일, 오전 10시 30분 해양생물자원관에서 열리는 세외수입 업무연찬회에 참석.

충청남도지사방문 행사



이용우 부여군수= 17일 오전 10시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지사방문 행사에 참석.



인구주택총조사 관리요원 교육 실시

계룡시, 정확한 통계는 국가의 경쟁력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앞서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시청 회의실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담당 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 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노령을 기술했으며 이번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다.

이용우 군수는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 뉴저지 시민들과 함께 백제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계룡시 전체 가구의 33%를 표본가구로 선정해 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하고 나머지 가구는 행정지표를 이용한 등록센서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계조사가 국가정책 결정에 중요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응답이 요구되며, 사생활도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안심하고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기구를 직접 방문하는 조사인력 76명에 대한 교육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정

읍·면·동장 회의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은 17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읍·면·동장 회의의 주제를, 오후 8시 강남지역 일원에서 진행되는 안심순찰운동 참석.

중심지단위 주민참여 현장포럼



김동일 보령시장은 17일 오후 2시 웅천복지관에서 열리는 중심지단위 주민참여 현장포럼, 오후 4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미소전철정결 시민감사위촉식 참석.

서산시여성대학 수료식



이원실 서산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서산시여성대학 수료식에 참석, 오후 2시 시장실에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준비상황 보고회에 참석하며, 오후 4시 서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평생학습발표회 폐막식 참석.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박동철 금산군수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참석.

2015 방과후학교 박람회



조병영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5 방과후학교 박람회 참석.

2015방과후학교 박람회



박동순 보령교육장은 17일 오전 11시 일산 KINTEX 제1전시장 1, 2홀에서 열리는 2015 방과후학교 박람회 참석.

광고문의

(042)538-3030

공주시, 'Book적Book적 백제문화 책 축제 한마당' 열려

책 통해 새 지식 나누는 기회 마련

공주시 시립도서관(관장 서난원)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책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쌓고 새로운 지식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는 19일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원에서 'Book적Book적 백제문화 책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는 책과 백제문화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생각과 감상을

표현하는 독후감상화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가정에서 읽지 않는 책을 교환해 읽어보는 '일플 도서 교환전' 등이 진행된다.

또한 패블이터러를 이용한 '곰나루 전설 동화공연'과 함께 질지도와 금관모형 등의 백제 유물 모형 만들기 체험,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사랑의 손편지 우체국, 시화 전시 등 다양하고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웅진어머니독서회(회장 이우근) 회원들은 '서로 서로 독서로' 캠페인과 제61회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원 모두 백제책을 읽고 홍보활동을 펼치며,

흥미진진한 책 축제 한마당 잔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물찾기 이벤트도 준비한다.

시립도서관 웅진관 임혜영 담당

은 "이번 책 축제가 책을 통해 다양한 삶과 사람들을 만나 즐겁고 유익하게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시립도서관(041-840-2205, 8955) 또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gongju.li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행위 단속 강화

공주시, 구입 시 적법한 검사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 당부 100만원 이하 과태료·핀매지도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팔려는 허위광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오는 30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금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중에는 길거리 캠페인과 아파트 단지 방송, 전

단지 배포,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불법 주방용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주의가 필요하다.

공주시 수도와 하수도팀 당정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염물질이 과다유입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라며,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 관광상품 판매 모바일 관광홍보관 운영

서산시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신규 관광객 창출을 위해 G마켓과 옥션에 지난 14일부터 모바일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관광홍보관은 축제와 대표 관광지, 맛집 등을 소개하고 여행상품도 판매하며 서산의 대표 볼거리와 살거리, 먹거리인 서산9경9품에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특산물 코너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생강한과, 산수향팥마늘, 6쪽마늘, 쌀 등의 농특산물을 준비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했다.

여행상품으로는 9월과 10월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와 국화축제, 뱀나지축제를 테마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관광객을 모집한다.

또 '서산으로 2행시 짓고 선물 받기', '퀴즈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서산시로 알리고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히 특색 있는 젊은 감각의 관광 상품 홍보영상도 9월중 홍보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정경 문화관광과장은 "7월부터 약2개월간 서산시 홍보관 방문자가 수가 15만명에 달하고, SNS 홍보 또한 5천명이 참여해 처음 실시한 온라인 홍보가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모바일 홍보관 오픈으로 웹사이트(PC)와 동시 홍보가 이뤄진다면 젊은 세대에 서산시 관광자원을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신규 관광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7월부터 국내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이베이코리아와 공동으로 G마켓과 옥션 웹사이트 쇼룸에 서산시 관광홍보관을 개설하고 관광자원 홍보는 물론 여행상품과 농특산물을 판매해 오고 있다.

서산=김정경기자

정기분 재산세 53억원 부과

금산군, 지난해 대비 5.2% 증가... 30일까지 납부

금산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도 2800만원을 부과했다. 지 및 주택2기분) 42,626건 53억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현대위아(주)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협찬금 전달 현대위아주식회사(대표이사 윤준모)는 지난 15일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협찬금 2000만원을 서산시에 전달했다. 이날 윤준모 대표이사를 대신해 협찬금을 전달한 김병조 총무실장은 "서산시의 대표축제인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는 '성벽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8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산해미읍성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금산=김남규 기자

우리/동네

현장행정 강화로 민의 따른다

<의견>

보령시, 대천3동 3분기 읍면동장 회의 가져

보령시가본청에서 개최하던 읍면동장 회의를 올해부터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개최하고 있다.

3분기 읍면동장회의가 16일 오후 2시 30분 대천3동 주민센터에서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사업소장과 읍면동장, 그리고 대천3동 통장 등 5명이 참여해 시청 주요 추진사항과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시책의 개선 사항과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해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이뤄졌다.

3분기 주요 시정 안내와 홍보 사항으로는 ▲안전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추진대책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일제점검 ▲찾아가는 미소전철정결 이카데미 운영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비브리오패혈증 및 쯤쯤기구시 예방 홍보 ▲보령댐 수위 최저로 물 아껴쓰기 홍보 등이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생활현황의 문제점들을 신속히 파악 조치하고 공공시설 관리 실패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운영 현황이 주목 받았다.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민원 즉시 해결 ▲중점관리시설 점검 및 보수팀 운영 ▲현장 맞춤형 전입신고제, ▲독거어르신 홀몸노년 돌봄서비스 ▲생생 기업 현장 간담회 ▲전통시장 살려주기 등이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달부터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즉각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 발 앞선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여한 통장들에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시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제25회 금산군민대상 확정

교육문화전인군·산업진흥정승철·사회봉사육성희씨

제25회 금산군 군민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금산군은 15일 군청상황실에서 제25회 금산군 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개최,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에 전인군(47세, 금성면), 산업진흥부문에 정승철(58세, 금산읍), 사회봉사부문에 육성희(68·제원면)씨를 각각 선정했다.

선정은 부문별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 속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의 전인군씨는 뿌리채 예술단 창단과 통합 금산농악보존회 설립에 기여하는 등 금산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았다. 금산전통문화대중화를 위해 금산세계타악공연예술축제 개최, 인삼축제, 비단고을 산꽃축제 등 다양한 곳에서 주민과 호흡하는 문화활동을 펼쳐왔다.

산업진흥부문 정승철 씨는 인삼유통 이중규제 타파를 위해 야사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중앙부처 탄원서 제출, 집회, 국회 방문 건의 등을 통해 인삼류 특례규정이 신설된 야사법 개정안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봉사부문 육성희씨는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봉사 단체의 주요 직위를 역임하며 자연보호활동, 꽃길 가꾸기, 무연분묘 발굴, 범죄예방 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재능기부 활동으로 경로위안잔치, 대표로진심밭기 등 크고 작은 행사의 공연과 지역 주민 농악 지도를 실시하는 등 참 봉사 활동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1일 제35회 금산인삼축제 폐막식 행사에서 갖는다.

금산=김남규 기자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만들기 그리스트랩 청소 및 유지 보수



학교, 병원, 식당 등 주방 및 급식실 그리스트랩 청소 관리

싱크대, 그리스트랩, 아수구, 정약조 등 폐기물 폐색으로 인한 보수공사 전문

악취, 아수구 막힘, 전염병 예방.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환경을 오염 시키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의적기업진흥원

\*하나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대전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91번지 월빙시티빌 403호 (주)하나위 www.hanawee.com

문의전화: 070-8289-1700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머느리 (SBS오전 8시30분)



경숙의 이혼하라는 말에 화가 난 현주는 성태에게 경숙의 말을 전한다. 성태는 경숙을 찾아가 양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하고, 잘못을 비는 경숙에게 경고를 준다. 한편, 거짓말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숙은 봉주에게 편지로 유언을 남기는데..

▲이브의 사랑 (MBC오전 7시50분)

강민이동하는 속내를 숨기고 집으로 돌아와 구 회장(이정길)에게 자신이 어려서였다고 말한다.

케이블 영화

▲콘스탄틴 (OCN 오후 9시50분)

인간의 형상을 한 혼혈 천사와 혼혈 악마가 존재하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타고난 존 콘스탄틴(키아누 리브스)은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 후 다시 살아난 그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지옥으로 돌려보내기에 나선다. 그레아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자신의 운명이 뒤바뀌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술, 담배에 젖어 살면서 계속되는 전투에 지쳐만 가던 콘스탄틴. 그런 그에게 어느 날, LA 강력계 소속의 여형사 안젤라(레이철 와이즈)가 찾아와 쌍둥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사건을 파헤칠수록 거대한 어둠의 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해... 콘스탄틴은 악마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확실한 건 이 지상에 선 악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세계와 지하 세계를 모두 경험한 존 콘스탄틴(키아누 리브스)이 악의 세력이 점점 어둠의 세계를 구현하는 이야기.



정옥(양금석)은 불면증이라는 캘리(진서연)에게 대추차를 먹고, 현아에 뺏겼던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우는데..

▲별이 되어 빛나리 (KBS2오전 9시)



범인을 확인하려 간 경찰서에서 윤희장과 서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정례는 윤희장과 대립하고, 봉선은 봉희에게 원수 집안의 아들인 종현과 다신 만나지 말라 다그친다. 한편 미수 또한 조재균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애숙과 동필은 영원히 함께 갈 것을 다짐하는데..

▲늑대소년 (채널CGV 오전 10시20분)

체온 46도, 혈액형 판독불가... 세상에 없어야 할 위험한 존재 늑대소년. 운명적 사랑에 빠지다!

요양 차 가족들과 한적한 마을로 이사간 소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의문의 늑대소년을 발견한다.

세상과 동떨어진 채 철저히 홀로 살아왔던 '늑대소년'은 처음으로 '소녀'의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형클어진 머리, 다 찢어진 옷, 다듬어 지지 않은 손발톱... 사람인 줄 알았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야생의 '늑대소년'에게 처음으로 다가와 준 사람은 바로 '소녀'와 그녀의 가족이다. 야생의 눈빛으로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소녀에게 웬지 마음이 쓰이는 소녀는 먹을 것을 보고 기다리는 법, 옷 입는 법, 글을 읽고 쓰는 법 등 소년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가르쳐준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준 소녀에게 애뜻한 감정이 싹트는 소년.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 소년의 숨겨져 있던 위험한 본성이 드러나고, 소년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데.....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전통품물화합한마당, 제8회 아산시장기 품물대회 열려

아산시 주최·한국예총 아산지회 주관



아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아산지회(회장 이동현, 이하 아산예총)가 주관하는 제8회 아산시장기 품물대회가 오는 19일, 온양온천역 광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로 8회째 맞는 아산시장기 품물대회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품물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보존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과 조상들의 기풍을 배우고 우리 문화의 향유를 통해 아산시민의 화합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공주신월초등학교

'수영 메카명성 그대로'



공주신월초등학교(교장 임동우)는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35회 교육감배 시·군·대학 수영대회에서 채현호(4학년)학생이 유년부 점영50m와 100m 종목에서 2관왕, 장한나(5학년)학생이 여초부 점영50m와 100m 종목에서 역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금, 은, 4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

유년부 자유형50m(이상형 4), 여초부 자유형200m(박려민 6)에서도 역시 영광의 금메달을 따냈으며, 유년부 평영50m와 100m에서(김운서 3), 2위를 했고, 이어서 유년부 자유형 100m(이상형 4)와 여초부 자유형100m(박려민 6)종목에서도 각각 2위를 차지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한 이번 대회의 우수한 결과는 공주신월초가 충남수영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공주신월초 임동우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하여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삼범기자

김명민·유아인·신세경 '육룡이 나르샤' 공식 포스터 공개

여섯 용의 폭발적인 카리스마로움이 담아낸 메인 포스터



오는 10월 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SBS 창시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가 날아오를 여섯 용의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오롯이 담아낸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국내 최고의 포토그래퍼 조선희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육룡이 나르샤' 포스터는 압도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포스터 속에는 '육룡이 나르샤'를 이끌어 갈 여섯 용 정도전(김명민 분), 이방원(유아인 분), 분이(신세경 분), 이방지(변요한 분), 무휼(윤근상 분), 이성계(전호진 분)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용'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인 만큼, 캐릭터의 특별한 과감력을 엿볼 수 있다.

이방원을 어떤 카리스마로 그려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스터 상단에 위치한 가상인물 남매 분이와 이방지도 눈길을 끈다. 여섯 용 중 유일한 여성 캐릭터 분이를 맡은 신세경은 곳곳하면서도 당찬 느낌을 준다. 특유의 많은 이야기를 품은 듯한 눈빛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이방지 역의 변요한 역시 특별하다. 변요한의 얼굴 곳곳에 그려진 상처, 말 못할 수많은 사연을 담은 듯한 표정은 그가 그림 파란만장한 이야기에 대한 금증을 한껏 지극한다.



창양 목면초, 플라잉디스크 윗놀이부 전국대회 우승을 향하여 지난 12일 서천비인초등학교에서 열린 2015 교육감배 충남학교스포츠클럽리그 플라잉디스크 윗놀이대회에서 남주부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충남학교스포츠클럽리그 대회 정상에 올라 충남 최강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logo.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기행문

연해주 한국인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5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통일이 되면 엄청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리라 믿어진다. 한인들이 이 넓은 조원지대에 땅을 임대하여 투자도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러시아 하산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두만강 철교 필자가 가리키고 있는 강 건너편이 북한 땅이다. 눈을 젖은 두만강 가요가 이 부근에서 지어졌다고 한다.

1938년 이전 한국인들이 이곳에 농사를 지은 흔적들이 보인다. 여기저기에 논두렁과 밭고랑 우물들이 수풀 속에 표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해주지역에서 살았던 한인들의 마을? 필자가 가리키는 곳이 상연주 고려인 마을이다. 이곳에서 안중근의사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하니, 자꾸만 연해주지역 선조들이 활약하신 엄청난 일들이 오늘 역사를 탐방하는 나에게 많은 교훈과 기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기록하고 싶다 - 그리고 알리고 싶다. 첫째: 힘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제35년의 쓰라린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 모두가 구국강병의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그렇기 위해서 애국자가 되어야한다.



1900년도 초 연해주 고려인 촌락 분포도

셋째: 인재를 길러 내야한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120척이나 되는 왜군을 물리쳤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임금과 백성을 안심시켰고, 자신의 몸을 던져 120척을 물리쳤다. 그리고 목숨을 조국에 바쳤다. 오늘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 땅에 나와야한다. 이런 인물들이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을 발굴하자.

아산인 이어, 충남인 이어~ 축복이 있기를.....

해방70년 분단70년 의미 있고 뜻 있는 해 2015년!

연해주에서 한인들이 독립운동 하신 발자취를 따라서 4박5일간 여행을 하며 마지막 방문 지역인 북한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두만강변과 두만강 북쪽 러시아 땅 하산역과 그 지역들을 돌아보았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말달리던 이곳은 넓고 넓은 조원지대였다. 한인들 1860년 두만강을 건너 고려인 마을들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 연해주 32개 지역에서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50만 명이 두만강을 건너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였을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두만강 변까지 4시간 가는 동안 가슴이 설레며 마음이 울렁거렸다. 그 옛날 발해의 땅이라서 그런지 더욱 마음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두만강 변에 도착해서 북한 땅을 바라보았다. 통일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두만강 철교가 더욱 친근함이 느껴진다.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러시아의 첫 기차역인 하산역이다. 이곳 중심으로 옛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펼쳤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본다. 스탈린이 러시아 지도자가 아닌 좀 더 선한 지도자가 러시아를 통치했다면!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지 않고 장개석이 통치하여 집권했다면... 한국의 역사는 통일된 국가로 달라졌을 텐데.....라고 혼자서 말해본다.

이 넓고 넓은 땅, 조상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 말 달리고 칼을 갈았던 곳 하산, 연추, 포시엣에 3만 명이 살았다. 그리고 케트로바야파츠 지역에 4-5천명이 살았고, 수찬지역에 약4,000명이, 우수리스크 약 65,000여명이 살았다고 한다. 연해주지역에서 많이 살았던 한인들의 마을들을 살펴 보면서 글을 쓰고자

기고

병역면탈행위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박창명  
병무청장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5년간 전체 병역면탈 범죄 중 연예인·체육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달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면탈 수법 등을 공유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고의적인 어깨탈구 후 수술을 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경우, 밀미약을 이용한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공정한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이긴하지만 병역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려는 행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요구됐다. 병역면탈 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2012.4.18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서 병역을 기피·감면 받을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찰 수사 경력자로 수사 전문인력을 증원했으며, 전문기관에 수사실무교육을 위탁 하고, 연중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된 직원은 전문직위로 선정해 장기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병역의무자 자료 보유기관과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는 등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 등 사회관계계층의 병역면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의 집중관리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체육요원 편입자 중 단체종목 무임승차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예술요원 인정대회를 기존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소년 및 소외계층

에 대한 일정기간 장애기부부 의무화 했으며, 특기 활용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한참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 20대 초반의 나이에 병역이행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병역면탈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사회 고위층의 자제라고 해서, 국제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운동선수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군 입대를 앞둔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 소중한 만큼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준다면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대 원칙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병무청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병역 이행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뿌리를 뽑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관행을 정상화 하고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고

늘어나는 '몰카 범죄' 예방법으로 대처해야



서경희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나서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위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터파크 몰카는 여성이 휴대폰 케이스형 최첨단카메라로 촬영하여 여성들만의 공간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간혹 휴대폰만 만져도 몰카 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소품 속에 숨길 수 있도록 고성능·소형화된 카메라가 다양하게 개발돼 여성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계단, 에스컬레이터, 탈의실, 샤워장 등이 몰카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지난 1일부터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형 몰카 시설을 비롯한 헬스클럽, 짐집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몰카 예방 홍보현수막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돌입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몰카 범죄는 1134건에서 지난해 6623건 발생해 6배 가까이 늘었으나 몰카 유동은 제재할 법안은 제약적이며, 실제 몰카 범죄에 대한 규제나 처벌도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부를 사에 반하여 촬영·판매·전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안경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내민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과 기기의 수상한 구명 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화장실 문고리를 확인하는 등 에스컬레이터를 탈때 뒷사람이 가방이나 소포백을 자신의 몸쪽으로 가까이 들이댄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등 스스로 주의 기울여야 한다.

사설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해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면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불법 부조리나 근무태만 등 공직사회에 대한 자체적인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기강 확립이 공무원의 근무시에 불안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은밀히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보도자료를 내고 암행감찰을 하는 선언적 의미가 내포된 감찰활동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다. 평소에도 조용히 실시하면 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어야 한다. 또 업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발각되면 일벌 백배로 징계하고 법이 확정되면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특별감찰활동이 문제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에 대한 답례로 유료수나 약주 한병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정성어린 선물조차도 남의 눈치를 봐야하는 공포분위기 특별감찰, 길들이기 특별감찰활동이라면 제고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불법과 부조리로 인한 질질뭇을 가리고 나 대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종토조성을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지자체는 너도나도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앞다투어 공개하고 나섰다. 해마다 양 명절에는 어김없이 실시하고 천명한다. 대전 충남 모든 지자체가 하나같이 똑같다. 실제로 충남도청 감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3개 반 19명으로 당직비리 감찰단을 편성해 추석 명절 전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별감찰활동의 주요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규약·보조금·용역·인허가

등 비리 취약부서 복무실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해태 등이다. 또 △민원처리 지연 △부서 간 떠넘기기 등 업무 전가 △업무처리 회피 등 무사안일 △개정법령 미 준수 등 선례 답습 △규제 남용 등 규제개혁 저해행태 부조리에 대해서도 감찰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드시 반환토록 하고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었다. 물론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안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과 나눔의 정마저도 그런 시각으로 보기에 하는 말이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찰활동이 신뢰받는 공직종토 조성이라는 목표와 어느정도 느슨한 분위기를 다잡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더욱이 추석명절 연휴 분위기에 편승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편의 제공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감찰 활동으로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논산시 감찰활동 발표에는 박수를 보낸다. 공직감찰도 중요하지만 질한 경우에는 인센티브제공 등 신장발달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들도 불쾌하지 않고 그 감찰에 수긍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별감찰활동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서약이나 자체 캠페인을 실시하여 스스로 청렴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공직자 청렴 의식을 스스로 강화하는 자정노력을 펼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과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천편일률적으로 명절 때만 되면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이라는 보도가 나오기에 하는 말이다.

Table with 2 columns: Year and News Title. Includes titles like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4년, 1963년, 1962년, 1961년, 1960년, 1959년, 1958년, 1957년, 1956년, 1955년, 1954년, 1953년, 1952년, 1951년, 1950년, 1949년, 1948년, 1947년, 1946년, 1945년, 1944년, 1943년, 1942년, 1941년, 1940년, 1939년, 1938년, 1937년, 1936년, 1935년, 1934년, 1933년, 1932년, 1931년, 1930년, 1929년, 1928년, 1927년, 1926년, 1925년, 1924년, 1923년, 1922년, 1921년, 1920년, 1919년, 1918년, 1917년, 1916년, 1915년, 1914년, 1913년, 1912년, 1911년, 1910년, 1909년, 1908년, 1907년, 1906년, 1905년, 1904년, 1903년, 1902년, 1901년, 1900년, 1899년, 1898년, 1897년, 1896년, 1895년, 1894년, 1893년, 1892년, 1891년, 1890년, 1889년, 1888년, 1887년, 1886년, 1885년, 1884년, 1883년, 1882년, 1881년, 1880년, 1879년, 1878년, 1877년, 1876년, 1875년, 1874년, 1873년, 1872년, 1871년, 1870년, 1869년, 1868년, 1867년, 1866년, 1865년, 1864년, 1863년, 1862년, 1861년, 1860년, 1859년, 1858년, 1857년, 1856년, 1855년, 1854년, 1853년, 1852년, 1851년, 1850년, 1849년, 1848년, 1847년, 1846년, 1845년, 1844년, 1843년, 1842년, 1841년, 1840년, 1839년, 1838년, 1837년, 1836년, 1835년, 1834년, 1833년, 1832년, 1831년, 1830년, 1829년, 1828년, 1827년, 1826년, 1825년, 1824년, 1823년, 1822년, 1821년, 1820년, 1819년, 1818년, 1817년, 1816년, 1815년, 1814년, 1813년, 1812년, 1811년, 1810년, 1809년, 1808년, 1807년, 1806년, 1805년, 1804년, 1803년, 1802년, 1801년, 1800년, 1799년, 1798년, 1797년, 1796년, 1795년, 1794년, 1793년, 1792년, 1791년, 1790년, 1789년, 1788년, 1787년, 1786년, 1785년, 1784년, 1783년, 1782년, 1781년, 1780년, 1779년, 1778년, 1777년, 1776년, 1775년, 1774년, 1773년, 1772년, 1771년, 1770년, 1769년, 1768년, 1767년, 1766년, 1765년, 1764년, 1763년, 1762년, 1761년, 1760년, 1759년, 1758년, 1757년, 1756년, 1755년, 1754년, 1753년, 1752년, 1751년, 1750년, 1749년, 1748년, 1747년, 1746년, 1745년, 1744년, 1743년, 1742년, 1741년, 1740년, 1739년, 1738년, 1737년, 1736년, 1735년, 1734년, 1733년, 1732년, 1731년, 1730년, 1729년, 1728년, 1727년, 1726년, 1725년, 1724년, 1723년, 1722년, 1721년, 1720년, 1719년, 1718년, 1717년, 1716년, 1715년, 1714년, 1713년, 1712년, 1711년, 1710년, 1709년, 1708년, 1707년, 1706년, 1705년, 1704년, 1703년, 1702년, 1701년, 1700년, 1699년, 1698년, 1697년, 1696년, 1695년, 1694년, 1693년, 1692년, 1691년, 1690년, 1689년, 1688년, 1687년, 1686년, 1685년, 1684년, 1683년, 1682년, 1681년, 1680년, 1679년, 1678년, 1677년, 1676년, 1675년, 1674년, 1673년, 1672년, 1671년, 1670년, 1669년, 1668년, 1667년, 1666년, 1665년, 1664년, 1663년, 1662년, 1661년, 1660년, 1659년, 1658년, 1657년, 1656년, 1655년, 1654년, 1653년, 1652년, 1651년, 1650년, 1649년, 1648년, 1647년, 1646년, 1645년, 1644년, 1643년, 1642년, 1641년, 1640년, 1639년, 1638년, 1637년, 1636년, 1635년, 1634년, 1633년, 1632년, 1631년, 1630년, 1629년, 1628년, 1627년, 1626년, 1625년, 1624년, 1623년, 1622년, 1621년, 1620년, 1619년, 1618년, 1617년, 1616년, 1615년, 1614년, 1613년, 1612년, 1611년, 1610년, 1609년, 1608년, 1607년, 1606년, 1605년, 1604년, 1603년, 1602년, 1601년, 1600년, 1599년, 1598년, 1597년, 1596년, 1595년, 1594년, 1593년, 1592년, 1591년, 1590년, 1589년, 1588년, 1587년, 1586년, 1585년, 1584년, 1583년, 1582년, 1581년, 1580년, 1579년, 1578년, 1577년, 1576년, 1575년, 1574년, 1573년, 1572년, 1571년, 1570년, 1569년, 1568년, 1567년, 1566년, 1565년, 1564년, 1563년, 1562년, 1561년, 1560년, 1559년, 1558년, 1557년, 1556년, 1555년, 1554년, 1553년, 1552년, 1551년, 1550년, 1549년, 1548년, 1547년, 1546년, 1545년, 1544년, 1543년, 1542년, 1541년, 1540년, 1539년, 1538년, 1537년, 1536년, 1535년, 1534년, 1533년, 1532년, 1531년, 1530년, 1529년, 1528년, 1527년, 1526년, 1525년, 1524년, 1523년, 1522년, 1521년, 1520년, 1519년, 1518년, 1517년, 1516년, 1515년, 1514년, 1513년, 1512년, 1511년, 1510년, 1509년, 1508년, 1507년, 1506년, 1505년, 1504년, 1503년, 1502년, 1501년, 1500년, 1499년, 1498년, 1497년, 1496년, 1495년, 1494년, 1493년, 1492년, 1491년, 1490년, 1489년, 1488년, 1487년, 1486년, 1485년, 1484년, 1483년, 1482년, 1481년, 1480년, 1479년, 1478년, 1477년, 1476년, 1475년, 1474년, 1473년, 1472년, 1471년, 1470년, 1469년, 1468년, 1467년, 1466년, 1465년, 1464년, 1463년, 1462년, 1461년, 1460년, 1459년, 1458년, 1457년, 1456년, 1455년, 1454년, 1453년, 1452년, 1451년, 1450년, 1449년, 1448년, 1447년, 1446년, 1445년, 1444년, 1443년, 1442년, 1441년, 1440년, 1439년, 1438년, 1437년, 1436년, 1435년, 1434년, 1433년, 1432년, 1431년, 1430년, 1429년, 1428년, 1427년, 1426년, 1425년, 1424년, 1423년, 1422년, 1421년, 1420년, 1419년, 1418년, 1417년, 1416년, 1415년, 1414년, 1413년, 1412년, 1411년, 1410년, 1409년, 1408년, 1407년, 1406년, 1405년, 1404년, 1403년, 1402년, 1401년, 1400년, 1399년, 1398년, 1397년, 1396년, 1395년, 1394년, 1393년, 1392년, 1391년, 1390년, 1389년, 1388년, 1387년, 1386년, 1385년, 1384년, 1383년, 1382년, 1381년, 1380년, 1379년, 1378년, 1377년, 1376년, 1375년, 1374년, 1373년, 1372년, 1371년, 1370년, 1369년, 1368년, 1367년, 1366년, 1365년, 1364년, 1363년, 1362년, 1361년, 1360년, 1359년, 1358년, 1357년, 1356년, 1355년, 1354년, 1353년, 1352년, 1351년, 1350년, 1349년, 1348년, 1347년, 1346년, 1345년, 1344년, 1343년, 1342년, 1341년, 1340년, 1339년, 1338년, 1337년, 1336년, 1335년, 1334년, 1333년, 1332년, 1331년, 1330년, 1329년, 1328년, 1327년, 1326년, 1325년, 1324년, 1323년, 1322년, 1321년, 1320년, 1319년, 1318년, 1317년, 1316년, 1315년, 1314년, 1313년, 1312년, 1311년, 1310년, 1309년, 1308년, 1307년, 1306년, 1305년, 1304년, 1303년, 1302년, 1301년, 1300년, 1299년, 1298년, 1297년, 1296년, 1295년, 1294년, 1293년, 1292년, 1291년, 1290년, 1289년, 1288년, 1287년, 1286년, 1285년, 1284년, 1283년, 1282년, 1281년, 1280년, 1279년, 1278년, 1277년, 1276년, 1275년, 1274년, 1273년, 1272년, 1271년, 1270년, 1269년, 1268년, 1267년, 1266년, 1265년, 1264년, 1263년, 1262년, 1261년, 1260년, 1259년, 1258년, 1257년, 1256년, 1255년, 1254년, 1253년, 1252년, 1251년, 1250년, 1249년, 1248년, 1247년, 1246년, 1245년, 1244년, 1243년, 1242년, 1241년, 1240년, 1239년, 1238년, 1237년, 1236년, 1235년, 1234년, 1233년, 1232년, 1231년, 1230년, 1229년, 1228년, 1227년, 1226년, 1225년, 1224년, 1223년, 1222년, 1221년, 1220년, 1219년, 1218년, 1217년, 1216년, 1215년, 1214년, 1213년, 1212년, 1211년, 1210년, 1209년, 1208년, 1207년, 1206년, 1205년, 1204년, 1203년, 1202년, 1201년, 1200년, 1199년, 1198년, 1197년, 1196년, 1195년, 1194년, 1193년, 1192년, 1191년, 1190년, 1189년, 1188년, 1187년, 1186년, 1185년, 1184년, 1183년, 1182년, 1181년, 1180년, 1179년, 1178년, 1177년, 1176년, 1175년, 1174년, 1173년, 1172년, 1171년, 1170년, 1169년, 1168년, 1167년, 1166년, 1165년, 1164년, 1163년, 1162년, 1161년, 1160년, 1159년, 1158년, 1157년, 1156년, 1155년, 1154년, 1153년, 1152년, 1151년, 1150년, 1149년, 1148년, 1147년, 1146년, 1145년, 1144년, 1143년, 1142년, 1141년, 1140년, 1139년, 1138년, 1137년, 1136년, 1135년, 1134년, 1133년, 1132년, 1131년, 1130년, 1129년, 1128년, 1127년, 1126년, 1125년, 1124년, 1123년, 1122년, 1121년, 1120년, 1119년, 1118년, 1117년, 1116년, 1115년, 1114년, 1113년, 1112년, 1111년, 1110년, 1109년, 1108년, 1107년, 1106년, 1105년, 1104년, 1103년, 1102년, 1101년, 1100년, 1099년, 1098년, 1097년, 1096년, 1095년, 1094년, 1093년, 1092년, 1091년, 1090년, 1089년, 1088년, 1087년, 1086년, 1085년, 1084년, 1083년, 1082년, 1081년, 1080년, 1079년, 1078년, 1077년, 1076년, 1075년, 1074년, 1073년, 1072년, 1071년, 1070년, 1069년, 1068년, 1067년, 1066년, 1065년, 1064년, 1063년, 1062년, 1061년, 1060년, 1059년, 1058년, 1057년, 1056년, 1055년, 1054년, 1053년, 1052년, 1051년, 1050년, 1049년, 1048년, 1047년, 1046년, 1045년, 1044년, 1043년, 1042년, 1041년, 1040년, 1039년, 1038년, 1037년, 1036년, 1035년, 1034년, 1033년, 1032년, 1031년, 1030년, 1029년, 1028년, 1027년, 1026년, 1025년, 1024년, 1023년, 1022년, 1021년, 1020년, 1019년, 1018년, 1017년, 1016년, 1015년, 1014년, 1013년, 1012년, 1011년, 1010년, 1009년, 1008년, 1007년, 1006년, 1005년, 1004년, 1003년, 1002년, 1001년, 1000년, 999년, 998년, 997년, 996년, 995년, 994년, 993년, 992년, 991년, 990년, 989년, 9



# 효협동조합

## 아는일

- 요문학 민중활동 후원
- 요 권면활동, 영선, 구해, 판매활동
- 책계재정터 운영
- 모험원 요책지사업
- 요연도봉분, 아이누리 마을기업 운영후원
- 무영금착소 운영
- 요재, 요부활을 지원
- ◆ 공주교육대학교 학교기업 특약점운영 (영수원재)

마시고 바르는  
장에 좋고 피부에 좋은

# 장수

JANGSOO

살아있고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삶이지 않아 유행미생물이

GABA  
물결함유

**※ 추석맞이 특별 할인상품**

- 영수음료 1개월분(30팩)1박스 6만원
- 연연오곡무
- 태양호고추 최상품 1근 11,000원
- 모시떡24알 9,000원, 용편25알 10,000원
- 귀리1kg 3,000원
- 각종양류(견장, 고추장, 된장, 찹장, 박장)
- 굴비,간고등어
- 특별영양식,국수계류1봉 7,000원
- 김 10,000원, 13,000원, 20,000원  
의 과일류(견과류)

영문·무분행원  
T. 042-582-0058  
M. 010-6433-7798  
010-9493-6848  
010-2015-8969

무분행원·우원  
무분재·우순·판매처  
2-3월 배급  
대금회계 | 농협 355-0029-1365 | 33 개영역



**우원 : 대면요도외, 안국요행청소년단, 공주교육대학교 학교기업,  
용문·아이누리 목요짱터**

대면광역시 서구 괴명로 134번지 17 (가평동57-1)동명빌딩 301호  
다음카페 효협동조합 T : 042.582.0058 F : 042.536.9118